

2017년 9월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 행복한 교육

‘교육 협치’의 새 시대 연다

마이스터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2017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초등교사 바다·강에서 생존수영 배운다





# CONTENTS

VOL. 422 SEPTEMBER 2017

## 현장 이야기

꿈이 영그는 현장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02
삶과 교육 한강희 울산 개운초등학교 교장	06
이런 수업 어때요 2017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10
아하! 창의체험 서운초등학교 체험학습장	14
화제의 교사 봉명탁 광주 서강고 교사	18
학교가 즐겁다 둘이 합쳐 달리는 이어달리기	20
에너지충전소 DBI교육연구회/읽기 부진 학생 교육지원 연구회	22

## 정책 이야기

기획 '교육 협치'의 새 시대 연다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자치' 본격 논의 시작	26 28
초점 I 교육부 6대 국정과제 ①	30
초점 II 초등교사 바다·강에서 생존수영 배운다	33
정책 특(Talk) 2018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주요사항 분석	36
정책카툰 행복(공공·연합)기숙사 늘리고 대학생 생활비 부담 줄이고	38

## 정보 이야기

### 교육논단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의 현재와 미래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40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으로 42

시도교육청 플러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 사업 44  
대구/대전/부산/경남/세종/전남/충남/강원/광주/충북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48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 미국, 일본 사례

학급경영노트 50  
따돌림을 예방하는 3가지 학급운영의 기술

아이의 다락방 52  
끼리끼리 뭉치는 아이들, 그들만의 법칙

학교 밖 학교 54  
배우고 꿈꾸는 강원도 교육여행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56

명예기자 리포트 57  
맨발로 걸으며 마음 터놓는 상담해요! 外

진로나침반 62  
웹툰 제작 총괄 프로듀서, 웹툰기획자

대학길잡이 64  
대학 수시전형 준비 노하우 ②

자녀교육 Q&A 66  
우리 아이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라(下)

## 교양 이야기

이야기 인문학 68  
시대의 폭력과 시인의 길

일상의 씬표 70  
내 삶의 씬표를 더하다, 강화도

생각나눔 74  
마음을 움직이는 생활지도 노하우 총집합!

뉴스브리핑 76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24% 인하 外

행복게시판 80  
구독신청 & 이벤트



### COVER STORY

기술명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공주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표정이 해맑다. 전기·전자 분야 마이스터고인 공주마이스터고(교장 차성우)는 2016년 100대 교육 과정 우수학교에 빛나는 명장의 산실이다. SMT장비기초실에서 실습 중인 3학년 학생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 마이스터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명장 산실로 우뚝 서다

공주마이스터고(교장 차성우)는 전기·전자 분야로 특화된 마이스터고다. 최근 3년 연속 취업률 95% 이상을 달성한 한편, 인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2016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등 놀라운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공주마이스터고 SMT장비기초실. 기술명장의 꿈을 키워온 공주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묻자 거침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육군의 기술부사관으로 통신장비 등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중현, 이성신 군에 이어 정성현 양은 “삼성전자 취업이 확정돼 있다.”라고 했다. 반도체 제조라인의 운전/운영을 하는 제조직에 합격, 정 양은 졸업 직후부터 마이스터가 되는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1학년 때부터 IT 자격증은 물론, 전기기능사 등 6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토익브릿지 등 외국어능력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송문영 공주마이스터고 교무부장은 “전 학생이 3년간 평균 5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 외국어, 봉사활동 등도 활발하다.”라며 “열정이 대단하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말한다.

### 이론에서 제품개발·공정까지 전 과정 실습실 갖춰

공주마이스터고는 전기·전자 분야 마이스터고다. 1972년 유구종합고로 개교한 이후, 2012년 SMT (Surface Mount Technology, 전자제품공정의 핵심기술)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뒤 내년 전기·전자 분야 마이스터고로 학과 개편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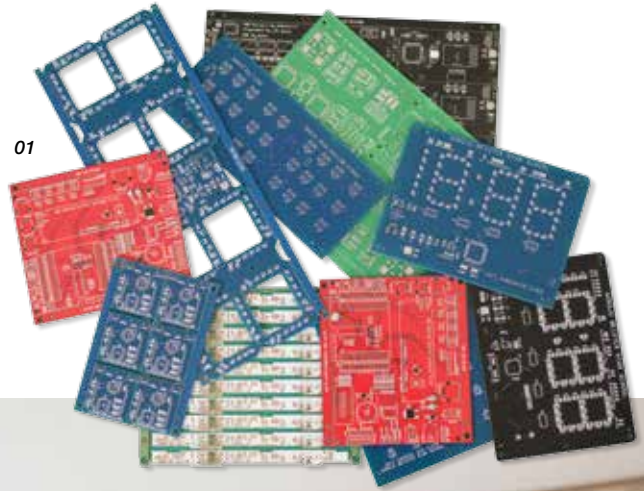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전기·전자 분야 기술인재를 폭넓게 길러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전기·전자 교육과정을 일찍부터 운영해 왔지요.”

차성우 교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지역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세종시 등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U턴할 거란 기대도 크다. 올해 신입생 경쟁률은 1.65 대 1. 지난해 2.3 대 1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전기·전자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내년부터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주마이스터고는 76여 개 산업체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 산학협력 약정에 따라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산업체 현장맞춤형 전공동아리반 운영, 2~3 주간 산업체 현장 인턴십 파견, 산학겸임교사 운영을 통한 산업현장 실무교육, 산업체 인사 멘토링제



- 01 PCB설계 실습으로 만든 전자회로기판
- 02 SMT장비기초실 마운터 실습 공주마이스터고는 전기·전자회로 이론부터 전자제품개발·공정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04

05



운영, 협약업체 초청 학교방문 기업설명회와 채용 면접 등 다양하다.

특히, 산업체 현장과 동일한 전기·전자 공정 분야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 전기·전자회로 이로부터 전자제품개발·공정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06

### ‘창업형 Step-Up 프로젝트 실습’ 눈길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6년째 운영 중인 ‘Step-Up 프로젝트 실습’은 올해 창업을 가미한 형태로 더욱 발전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전기·전자회로의 해석부터 전자기기 작품 제작에 이르는 프로젝트 작품을 제작하며 실무역량을 키운다. 1학년 때는 전자회로를 응용한 전기·전자기 초를 다룬다면, 2학년 때는 PCB(인쇄회로기판)설계 프로그램과 SMT 장비를 활용해 하드웨어 중심의 작품을 제작한다. 더 나아가 3학년이 되면 자율 주제를 정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혼합된 응용 작품을 선보인다.

3학년 이호림 양은 올해 세 친구와 더불어 ‘사과’ 주식회사를 가상으로 설립하고, ‘미니멀리즘 디지털 시계’를 시제품으로 제작했다. 시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고, 스탠드와 벽걸이 겸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핵심기술. 이 양은 “사장, 공장장 등으로 직급을 부여하고, 역할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을 디자인하고 3D프린터로 외관 작업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식을 더 많이 쌓고 배웠다.”라고 말한다. 프로젝트를 함께 한 이 중현 군 또한 “내가 사장이다(웃음). PPT로 발표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생산라인을 모두 경험 하면서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제품이 완성되면 학부모 등을 초청해 발표회를 갖고, 구매 스티커를 통해 현장 반응도 살펴본다. 송문영 교무부

#### 마이스터고란?

마이스터(Meister)란 한 분야의 전문가, 명장, 장인을 뜻하는 독일어에서 유래.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기술중심 교육으로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 분야 : 기계/뉴미디어/모바일/바이오산업/에너지/전자/소프트웨어 등 총 48개교

➔ 혜택 :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전원 기숙사 생활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 지원

• 해외 산업체 연수 등 글로벌 기술명장 육성

• 병역 연기(4년), 병역 특례(산업기능요원) 혜택

• 취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 등으로 대학 진학 가능

• 학급당 20명으로 맞춤형 소수정예 교육

➔ 모집 : 10월 말(학교별 홈페이지 확인)



66

자신의 기술, 일을 가지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마이스터고가 추구하는 '일품교육 명품취업' 슬로건은 결국 궁극적 목적이 행복에 있습니다. 끼를 살려 꿈을 이루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갑니다.

차성우 교장

99



07

장은 “3~4명이 한 팀을 이뤄 회사 홍보 포스터부터 창업제품 사용설명서 등도 직접 작성해 본다. 3~4개월에 걸쳐 3번이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지도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완성한다.”라며 “학생들의 작품 수준이 높다. 산업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고 놀란다. 채용할 때 참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 인성과 감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3년 연속 95% 이상 취업률 달성

특기적성 방과후학교도 다양하게 열린다. IT네트워크반 등 전공동아리뿐만 아니라 텃밭가꾸기, 인문학의 밤, 밴드부, 댄스부 등 인문·특기적성 동아리 활동이 주말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명장졸업생인증제는 다방면에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직업기초, 전문기술, 정보화, 외국어, 직업윤리 5가지 항목에 등급 기준을 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학생들은 3년간 180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고, 80권의 독서를 하는 한편, IT 또는 전공 관련 자격증을 5개 이상 취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전교생, 전교직원 등산 활동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환경 정화에 나서고 있으며, 아침을 여는 독서시간을 30분간 운영하고 있다. 사제가 함께 하는 인문학 축제, 우리말 사랑대회와 인문학 명사 특강, 1인 1악기 배움을 통한 작은음악회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정서도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공주마이스터고는 최근 3년 연속 취업률 95% 이상을 달성했다. 3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2016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등 놀라운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차성우 교장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유지율이 높다.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천 적응력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취업한 학생 가운데 40%가 대기업·공기업에 입사하고, 대부분이 중견기업에 취업한다. 양질의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



08

- 03 전자회로제작 동아리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전자회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04 SMT공정실습실 실습 모습
- 05 명장졸업생인증제 활동 영역과 개인별 성취 과정을 전시해 놓았다.
- 06 아이들의 자작시를 묶은 시선집. '남편시간' 등 시제나 소재에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07 마이스터고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지원한다.
- 08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밴드부

한강희 울산 개운초등학교 교장

#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 사랑입니다”



해마다 졸업생들에게 멋진 붓글씨로 좌우명을 써서 선물하고, 또 전교생의 가정에는 가훈을 통한 인성교육에 매진해온 교사.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천하면서 ‘청백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한 울산 개운초등학교 한강희 교장을 만났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붓글씨를 쓰는 한강희 교장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붓글씨를 썼다. 학생 수가 많은 해엔 하루 2시간씩, 족히 녀 달 여 이상을 이 작업에 매달렸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좌우명과 가정에서 정한 가훈을 직접 붓글씨로 써서 선물해 오고 있는 울산 개운초등학교 한강희 교장(59). 옥동초등학교 재임시절부터 써주기 시작한 좌우명은 어느덧 1,300여 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후 가훈까지 직접 써준 건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신천초등학교에서부터다. 지난해 부임한 이곳 개운초교까지 더하면 벌써 1,570가정에 그가 손수 쓴 가훈이 전달됐다.

“초등교육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능력, 국민으로서 기본적 자질 등은 초등교육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지요. 저는 초등교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인성과 진로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아 왔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훈과 좌우명을 직접 써서 전달한 것도 이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의 일환이었어요.”

무한불성(無汗不成). ‘땀 없이는 이를 수 없다’는 이 말은 한 교장이 학생들에게 자주 써주었던 좌우명이자 가훈 중 하나였다. 이렇게 써준 문구로 인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이 함양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며, 국가 인재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학생의 인성함양은 사실상 가정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 교장이 가훈 교육에 남달리 매달려온 이유다. 또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족과 대화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 가정마다 삶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났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 인성교육을 일깨워 준 그때 그 제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력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학력과 인성교육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학력우선주의로 치우치다보니 부작용이 생깁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학교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죠.”

한강희 교장이 인성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매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한 교장에게도 한때, 그런 과오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6학년이 되고서도 책을 읽을 줄 모르고, 덧셈과 뺄셈이 잘 안 되던 아이. 당시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심한 학습부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방과 후에 따로 지도를 해 보았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한 교장은 “그땐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강압적인 자세로 그 아이에게 큰소리를 치고는 했었다.”고 솔회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주문이 그 아이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깨달음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찾아왔다.

“그 아이는 선생님을 원망하면서 아마도 학교에 오기 싫었을 지도 모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로지 학습부진을 구제한다는 책임감만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미안하고, 또 후회스럽기도 해요.”



01



02

‘교육은 학력이 전부가 아닌데, 그 아이도 숨은 재주가 있었을 텐데, 그 점을 발견해내고 키워주었으면 그 아이에게 훨씬 더 나왔을 텐데…….’ 그와 같은 아쉬움은 오롯이 남아 있다. 한 교장은 그 후, 한 국교원대학교대학원 초등도덕과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실천 노하우에 대해 새로 공부했다. 또 교사 스스로 학생들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술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자고 다짐했다. 학생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과 한 약속은 작은 것일지라도 꼭 이행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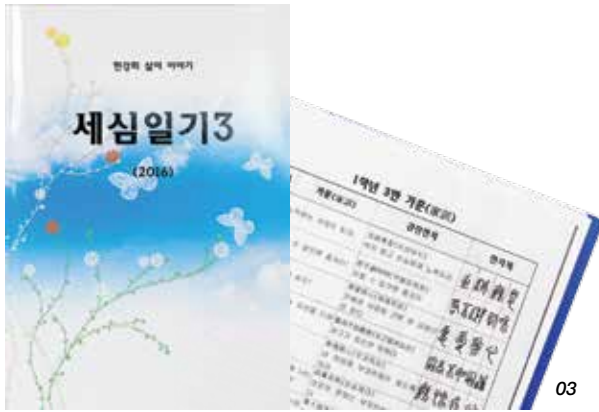
그가 말하는 교육의 정의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선생님이 사랑하면, 학생들도 존경과 신뢰로 대답한다. 이렇듯 사랑과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교육은 비로소 그 본질을 다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사랑이 배제된 교사와 학생 사이라면, 단지 교육은 기계적인 지식 전달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이다.

###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때까지!

“신천초교에 재직할 때 매주 두 차례 학생들과 순번을 정해 점심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른바 ‘밥상머리교육’의 일환이었는데, 이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고민도 들어주고, 또 식사예절도 익히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로부터도 반응이 좋았는데, 이곳 개운초교에서는 보류 중입니다. 교장선생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의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지요.”

개운초교의 조회는 ‘훈화는 짧게, 감동은 길게’로 이어진다. 한 교장은 “긴 훈화만 있는 조회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라며 웃는다. 조회명도 타 학교와는 다르게 ‘인성조회’로 부른다. 물론 형식도 다채로워졌다. 1학년들 대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계절별 학년별로 맞춤형 노래를 부르는 ‘동요조회’도 진행된다.

개운초교는 지난해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정했다. ‘OKSTRA 개운교육’이다. 한강희 교장이 부임하면서 그의 소신의 일성을 담아낸 학교경영 프로그램이다. “학교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여야 하며, 교사는 곧 교향악단의 단원들이고, 그 단원들은 학급이라는 고유한 악기로서, 교육과정이라는 연주곡을 훌륭하게 변주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한다. 그러면서 한 교장은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훌륭한 연주곡을 빚어낼 때, 학부모는 비로소 감동하게 된다”라고 강조한다. ‘OKSTRA 개운교육’은 곧 “학생(Student), 교사(Teacher), 학부모(Parents) 모두(All)가 만족(OK)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01 02\_\_ 옥동초 재임시절부터 써주기 시작한 좌우명은 어느덧 1,300여 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03\_\_ 일기장「세심일기」와 개인 가훈집

지난해부터 이 새 프로그램에 걸맞은 특색 있는 교육활동도 마련했다. ‘도심 속의 함월산 생태학습’과 ‘미래의 꿈을 키우는 개운 OKSTRA 학습장’ 운영이 그것이다. 프로그램 운용에 소요되는 부족한 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충당하고 있다.

“우리학교 뒷산이 함월산이에요. 학년별로 4월, 6월, 10월 연 3회에 걸쳐 이곳을 탐방하면서 계절별 동식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이에요. OKSTRA 학습장은 이 도심 속 생태 탐방 외에도 인성, 독서지도, 학년 및 학교행사, 과정중심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습활동을 수시로 기록해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상호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곤 합니다.”

###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천

한강희 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수여하는 ‘2014 청백교육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천은 그의 교직생활의 화두이자 신조였다. 2013년 신천초교에 재직 시 S2B(학교장터) 청렴계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그 좋은 예다. 학교물품, 용역 구매 계약 시 업무담당자와 선정위원회가 직접 담당하게 해 학교장으로서 일절 개입하지 않음을 철칙으로 삼았다. 거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건 물론이다.

3년 전부터는 울산지역 신규 교장 연수프로그램의 멘토로도 활동한다. 한 교장에게도 젊은 시절, 본받고 싶은 멘토 교사가 있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친자녀처럼 여기며 몰래 도움을 주던 선생님, 항상 웃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던 선생님 등등. 재직했던 학교마다 직접 드러내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들 모두가 그에게는 롤 모델이자 사표였다.

전교생에게 손수 좌우명을 써주는, 한강희 교장의 좌우명이자 가훈은 ‘정심실행(正心實行)’. 정직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는 그는 요즘도 매일 일기장에 「세심일기(洗心日記)」를 쓰고 있기도 하다.

“매사에 성실하려는 노력은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평범한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결코 쉽지는 않지요. 제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독서나 붓글씨를 쓰는 행위도 바로 이 ‘정심실행’의 작은 실천이기도 하고요.”

후배교사들에게는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속담을 들려주고 싶다는 한강희 교장.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⑦



01

# 2017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오늘은 선생님이 '자유학기 수업' 배우는 날!



02



03

자유학기 교실수업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보고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를 개최하였다. 110여 명의 수업명장과 15개 우수학교 등이 제공하는 83개의 자유학기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사전등록을 한 전국의 교원 2,300여 명을 비롯해 현장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학생 중심 수업 방안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는 열띤 시간이었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유학기제가 교육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교사들을 격려했다.

첫째 날에는 자유학기의 수업 변화를 선도해 온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오후부터는 수업명장들의 ‘수업 나눔’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 3의 법칙을 적용한 ‘대전가오중학교’

대전가오중학교(교장 김문구) 장소영, 윤이나, 진아람 교사는 ‘3의 법칙을 적용한 3인 3색 찬란한 교실 수업 여행’이란 주제로 수업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3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한 편의 동영상도 상영되었다. 한 명이 하늘을 바라볼 때 지나가는 행인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세 명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반응을 보이다가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즉 3명일 때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며, 사람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소영, 윤이나, 진아람 교사도 ‘3의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세 교사의 공통점은 동일 학년의 동일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 장소영(수학), 윤이나(영어) 진아람(과학) 교사는 모둠 구성을 위해 교과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같은 모둠으로 수학, 영어, 과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학시간에 두뇌유형 진단프로그램(4MAT)을 도입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둠원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모둠을 조직한다. 영어시간에는 모둠의 특색이 드러난 구호와 모둠 도장판을 만든다. 과학시간에는 개별 도장판을 제작하는데, 이때 도장판은 타 교과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 특색 있다.

교과는 다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모둠 활동이 연속으로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과 간 연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융합프로젝트가 수시로 진행된다. 재난 매뉴얼,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정수·유리수 보드게임 개발 등 다양한 융합프로젝트가 가능한 이유다. 하나의 융합프로젝트에 대해 과목별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크지 않다. 완성된 프로젝트 결과물은 전시를 통해 학생들 간에 공유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또한 각자 자신만의 수업브랜드를 갖고 있는 3인의 교사는 함께 모둠을 관찰하고 일지에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수업 참관을 통해 서

01 대전가오중학교 장소영, 윤이나, 진아람 교사의 수업콘서트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모둠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02 머시멜로와 파스타면을 활용해 선생님들이 창작한 구조물

03 통로에 마련된 전시, 게시물을 둘러보는 선생님들

0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 참여한 교사들을 향해 “자유학기제가 교육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하고 있다.





05

06

07

로의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수업성찰일지에 기록한다. 장소영 교사는 “수학교사가 영어수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겠지만, 모둠을 관찰하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업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다. 수업성찰일지, 모둠관찰일지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기록, 모듬의 활동 기록이 빼곡하다.”라고 말한다.

각기 다른 교과목을 지도하는 3명의 선생님들이 탐구공동체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수업나눔을 실천하는 동안 ‘3의 법칙’이 발현되어 지금은 수업나눔에 대한 열정이 대전가오중학교 선생님들 전체로 확산되는 긍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수업

경기 중원중학교(교장 신광우) 김미경(과학과) 교사는 수업콘서트에서 학생들이 협동(Collaboration)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진로(Career)를 생각하며 스팀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창의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고안한 ‘fun-fun 과학C<sup>3</sup>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미경 교사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어려운 개념과 외울 내용이 가득한 과학 수업대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깨워주고 싶었다.”라고 설명한다. 김 교사의 수업은 융합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 과학적 흥미를 느끼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머시멜로, 파스타면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세상이 품고 있는 숫자를 촬영한 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UCC를 제작하여 발표회를 열기도 한다. 미니 광섬유와 LED를 활용해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드는 등 어려운 과학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김미경 교사는 또 학생들이 천문학자, 계통분류학자, 고생물학자와 같은 연구를 체험해봄으로써 과학활동에 필요한 기본 탐구 능력을 키우고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세상과 소통하는 창, 과학(나도 과학자)’이라는 진로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역할이 부여된다. 천문학자로서 천체망원경을 제작하고 천체를 관찰하기, 계통분류학자로서 생물의 형태에 따라 계통분류하기, 고생물학자로서 화석을 발굴하고 지질 작용에 따른 화석 생성하기 등이다.



- 05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체험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교사들 (김미경 교사의 수업콘서트)
- 06 200여 종에 달하는 자유학기제 자료집들
- 07 대전기초중학교 장소영 교사가 제작한 수학노트
- 08 영해중의 국어수업을 소개하는 이미지 교사
- 09 자유학기제 전시물들

08

그밖에도 김미경 교사는 과학적 소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핵심역량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있다. 마우스 트랩의 탄성을 이용한 멀리 이동하는 자동차 만들기 미션을 수행하고, 전자과학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무선 조종 로봇 자동차를 제작하였다. 빨대와 핀을 이용하여 구슬이 멈추지 않고 가장 느리게 결승선에 도착해야 하는 ‘노림보 구슬 트랙’은 학생들의 과제집착력 및 협업 능력을 키워주며, 기록보다는 완주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수업콘서트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마시멜로와 파스타면을 이용해 건축물을 만드는가 하면, 화폐를 뚫어져라 살펴보며 감별기법을 찾아본다. 영화를 감상하며 빛을 더해 과학으로 그린 신인상주의 그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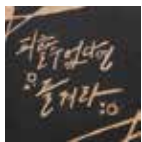
### 우리 동네 홍보 책 제작, 살아있는 글쓰기 훈련

경북 영해중학교(교장 박재복) 이미정(국어과) 교사는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을 주제로 많은 선생님들과 수업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는 “영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장에 대해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애乡심을 높이면서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미정 교사는 영덕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해 알아보고 오침안정법과 양장 제본 기술을 익힌 학생들이 직접 영덕을 홍보하는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영해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괴시 마을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를 찾고, 목은 이색 선생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영양학적 가치를 배우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신돌석 장군과 3·18 독립만세제거, 영덕의 역사에 대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글을 써서 직접 책을 만들었다. 여기에 국어 관련 직업 체험하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학교 게시판을 통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며 글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살아 있는 글, 독자가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는 이미정 교사는 “아이들이 ‘이 책을 누가 보느냐?’고 물을 때 전국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왔다. 책 만드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애乡심이 높아졌으며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 자유학기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및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집도 함께 전시, 배포되어 선생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수업 명장들의 노하우를 나누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열공’에 빠져들었다. 특히, 어느 연세 지긋한 선생님은 “초임시절의 열정을 나누게 되었다.”라며 “내년에는 받아만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나눔으로 풍성해질 수업콘서트를 기대해 본다. ⑤



09

## 서운초등학교 체험학습장

# 생생한 체험하는 학교로 “얼썬~” 신명 나는 풍물 한마당

“딩 덩 덩따쿵따~ 더딩딩 덩따쿵따~”

삼채 가락을 처음 배우는 데도 장구를 두드리는 품이 제법 그럴듯하다. 장구채를 잡을 때만 해도 긴장하더니 이젠 농악 판을 벌이는 굿패인양 흥겨운 분위기다. 아이들보다 엄마야빠 얼굴에 더 웃음꽃이 피었다.

8월 5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초등학교 다목적실. 30도를 웃도는 폭염도 아랑곳없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된 서운초 토요학교 참가자들은 수업 내내 지친 기색 없이 즐거워했다.

체험학습장 주제는 ‘남사당패의 별★ 바우덕이를 찾아서’. 다목적실에는 ‘예향의 고장 안성 전통문화의 계승’ ‘즐겁게 배우는 남사당 풍물놀이’ 등 남사당패 자료가 가득했다. 한편에는 징, 팽과리, 북 등 사물놀이 악기가 놓여 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토요학교 참가자들이 만든 한복 공예품과 에코백, 탈장식 공예품, 바우덕이 캐릭터 열쇠고리 등도 전시돼 있다.

###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장 ‘인기’

이날 토요학교에는 7가족, 18명이 참가했다. 오전 9시 일찌감치 학교에 온 이들은 스크린으로 바우덕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조선 후기 예인의 일생을 더듬어봤다. 안성은 남사당패의 본거지다.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다섯 살 때 남사당패에 들어가 줄타기, 살판 등 기예를 익혔다. 그가 이끈 남사당패는 경복궁 중건 당시 신명나는 공연을 펼쳐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옥관자를 하사받을 정도였다. 그 시절 “남사당패가 왔다”가 아니라 “바우덕이가 왔다” “바우덕이다”로 불릴 만큼 바우덕이의 인기는 대단했다.

토요학교는 조영기, 채경전 서운초 교사가 진행했다. 실기에 앞서 채 교사의 이론 수업이 시작됐다. 민복을 입고 바우덕이의 삶과 남사당 풍물에 대해 두루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가 급이다.

“바우덕이 풍물패는 안성 청룡사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바우덕이의 이름이 네 글자일까요?”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답변을 내놨다. “가명이라서요.” “네, 맞아요. 연예인 본명을 보면 가끔 촌스럽잖아요. 진짜 이름은 김암덕이예요.”

채 교사의 열띤 설명이 이어졌다. “바우덕이가 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을까요? 남사당패 50명이 남자인데 열다섯 살에 그들을 이끄는 꼭두쇠가 됐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유일무이한 여자 꼭두쇠였어요. 바우덕이패는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집단이고, 바우덕이는 여자 아이돌 스타였죠.”

이론을 익힌 후 북아트 작품을 만들었다. 남사당 풍물놀이 여섯 마당인 풍물놀이와 버나, 땅재주, 어름, 덧뵈기, 털미의 특징과 사진을 담은 초미니북이다. 전국대회 입상 경력을 가진 서운초 풍물패가 수업 중간에 공연을 펼쳐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이 가장 신나했던 건 실기 시간이다. 버나(접시돌리기), 상모돌리기 체험을 하고 채 교사의 태평소 연주를 들은 후 빨대로 태평소 ‘서’를 만들어 소리도 내봤다. QR코드를 이용해 남사당 보물찾기 활동도 했다. 전통의상 체험 때는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남사당패로 분한 자녀를 촬영하느라 바빴다. 실기 수업 후 스쿨에코팜에서 토마토, 오이, 가지, 상추 수확도 했다.





- 01 \_\_ 태평소 실습
- 02 \_\_ 토요일교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
- 03 \_\_ 민복을 입고 남사당 풍물에 대해 두루 설명하는 채경전 교사



02



03

## 올해 도내 초교 80곳 체험학습장 운영

초기에는 한두 가족 밖에 오지 않아 교사들의 애를 태웠던 토요일학교가 이제는 안양부터 평택, 오산, 수원, 용인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두루 올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육아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 좋다더라”며 입소문도 났다. 그간 다녀간 참가자만 400명이란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운초를 비롯해 올해 공모로 초등학교 80곳을 도교육청 체험학습장으로 지정했다. 체험학습장은 교육공동체가 나눔과 배려

를 실천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영역은 주제 체험학습장(55개교), 전통문화 체험학습장(16개교), 예절 체험학습장(9개교)이다.

이날 토요일학교 참가자 중에서 ‘칭일집’ 아빠가 눈에 띄었다. 초6 태운과 초2 라운, 아

내 김인숙(42, 방과후 수업 강사) 씨와 함께 온 김진태(42, 회사원) 씨는 “다소 축스러웠지만 음악에 관심이 높은 딸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하여가’ 속 태평소를 직접 연주해보니 좋더라. 나중에 꼭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교 풍물패에서 팽과리를 치는 가현(공도초 3)이는 한 살 터울 동생 태현이와 함께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김 양은

“남사당 풍물 체험이 진짜 신났다.”라며 웃었다. 안성이 고향인 엄마 문정란(37) 씨는 “남사당은 유네스코 중요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아이들이 고향의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요일학교에 왔다.”라고 했다.

조성희(45) 씨는 수업 시간 내내 딸 혜수를 챙기느라 바빴다. 혜수는 지적



04

## 서운초 체험학습장 운영 노하우! Tip

서운초 체험학습장은 어떻게 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 코스로 자리잡았을까. 기획과 홍보를 맡은 조영기(37),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채경전(38) 담당 교사로부터 답을 들었다.

### 1. 지역 맞춤형 주제를 정하라

안성은 바우덕이 축제로 유명하다. 이런 특색을 살려 바우덕이를 내세워 체험학습장을 운영했다. 조 교사는 “주제 없이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면 실패할 수 있다.”라며 “예컨대 안산은 다문화, 여주 이천은 도자기, 비무장지대가 자리한 포천은 통일, 양평은 숲속 체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 2.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두 교사는 류방송 교장, 최수봉 교감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 보물찾기를 하거나 손코팅 필름으로 바우덕이 캐릭터 열쇠고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시각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



채경전 교사(왼쪽)와 조영기 교사

이트했다. 이런 노력 덕일까. 8월 5일 토요일학교에 참가한 7가족 18명은 “심화 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참가하겠다.”라고 말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두 교사는 남사당보존회 회장과 상쇠, 남사당전수관 강사들로부터 기능과 지도법을 배웠다. 채 교사는 “9월 안산 원곡초 교사들을 상대로 전통문화 지도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꾸준한 실력 연마로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이다.

### 3. 맞춤형 홍보에 열정을 쏟아라

학교 측은 토요일학교를 남사당전시관 공연까지 연계해 하루 체험 학습 코스로 홍보했다. 초기에는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냈다. 조 교사는 “특히 도교육청과 시청에 지원사격을 요청해 홈페이지에 무료 배너 광고를 실을 수 있었다.”라며 “그 덕을 톡톡히 봤다.”라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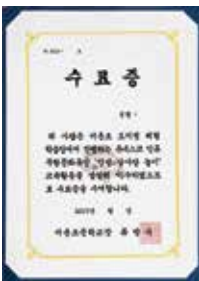
05



06



07



08

- 04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
- 05 서운초 풍물패 공연
- 06 스콜에코팜 텃밭 체험
- 07 QR코드를 활용한 남사당 보물찾기
- 08 풍물 실기수업 수료증
- 09 서운초 풍물패



09

장애인 직업재활학교인 한길학교 3학년에 다닌다. 조씨는 “장애아가 체험학습을 할 만한 곳이 사실 많지 않다. 오늘 서운초 체험학습장에 와보니 좋다. 아이가 버나 체험에 푹 빠졌더라.”라며 환히 웃었다. 조 씨도 남사당 공연을 보면서 세세한 건 몰랐는데 이론과 실기 학습을 통해 이해가 더 깊어졌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토요학교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남사당전수관 공연 관람을 포함해 하루 체험학습으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도 ‘주말N(엔) 예술더하기’라는 타이틀로 체험학습장을 홍보하고 있다. 최수봉(51) 교감은 “안성은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토요여행지로 최적의 지역”이라며 “주말에는 집에만 있지 말고 가족과 함께 문화체험을 해보라.”라고 권했다. 토요학교를 마친 후 점심에 안성8미를 즐긴 다음 팜랜드·천문대 견학, 남사당전수관 공연까지 보면 주말을 알차게 보내라는 것이다. 전교생이 72명인 작은 농촌학교인 서운초는 평소 전통문화

교육을 많이 해왔다. 그러다 도교육청 체험학습장에 지정돼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토요학교부터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 맞춤 선택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강좌를 운영 중이다. 토요학교 과정을 2시간으로 줄여 직접 학교로 출장 수업도 나간다. 평일에 서운초로 찾아오면 토요학교 과정 그대로 체험학습도 해준다.

학교 측은 바우덕이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에 터를 잡은 교육 환경을 활용해 실기 중심의 체험학습장을 운영한 것이 호응을 얻은 비결이라고 전했다. 최 교감은 “사실 보여주기식 체험학습장이 많은데 전통문화 영역에서 분명한 주제를 잡고 내실 있게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라며 “9월부터 토요학교 기본 과정 이수생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 봉명탁 광주 서강고 교사

# 16년째 생태환경교육 앞장 선

## ‘무등산 환경지킴이’

‘맑고 깨끗한 환경이 함께 할 때, 풍요로운 미래도 지속가능하다.’ 올해로 16년째, 환경생태교육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서강고 봉명탁 교사(55)가 늘 골몰하는 화두 중 하나다. 그가 현재까지 생태환경교육은 물론 환경운동으로 이끈 광주지역 중고생 환경지킴이만도 3,000여 명 정도에 이른다. 광주지역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부설 ‘무등산사랑청소년환경학교(이하 환경학교)’를 통해서다. 이들 졸업생들은 무등산을 비롯하여 영산강, 광주천 살리기 등 광주지역 환경 보호 캠페인에 솔선하고 있다.

봉명탁 교사는 현재 이 환경학교의 교감이자 운영위원, 그리고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 교사는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2회 2017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점촌 초 박진서 영양교사와 공동수상). 그는 여기서 받은 상금도 환경학교 운영을 위해 전액 기부한 바 있다.

### “부채 사용으로 에너지도 다이어트해요!”

“현재 환경학교는 교육 재능기부를 하시는 여덟 분의 교사진으로 운영됩니다. 무료봉사는 물론 선생님들이 모두 사비를 털어가며, 발 벗고 나서주시는 덕분에 지난 16년간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지요.”

환경학교는 5월과 6월, 9월과 10월, 연중 4차례 운영된다.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매 기수마다 적게는 40명, 많을 때는 60명까지 참가한다. 무등산 중심계곡, 원효계곡, 담양 습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등은 환경학교의 주요 생태학습 체험 장소다. 봉 교사는 향후 이 중·고등학생 대상 환경학교 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학교’ 개교를 구상 중이기도 하다.

봉명탁 교사는 서강환경과학동아리(Mars)를 20년째 이끌면서 학생들과 함께 매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과학실험 재능기부 활동도 전개한다. 또 서강고 교내에서 이뤄지는 환경보호 캠페인 역시 주로 이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된다.





01 무등산사랑청소년환경학교에서 16년째 재능기부를 하며 무등산 환경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봉병탁 서강고 교사는 에너지다이어트 부채와 에코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02 사강환경과학동아리 학생들과 봉 교사

03 봉 교사가 지도해온 환경과학동아리 상장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4년째 학생들과 함께 에코백(시장바구니)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다이어트 부채’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요. 나무젓가락 사용을 줄여볼 요량으로 역시로 만든 젓가락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만들었고요.”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장윤민 학생은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정화시설에 들어가 실험도 해보고, 또 전국 규모의 과학축전에도 참가해 상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이 무척 즐겁고 신이 난다.”고 귀띔했다. 이 동아리는 2015년, 광주시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에서 고등부 대상을, 전국 규모 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요즘 동아리에서 수행하는 주요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풍력과 조력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열공 중이다. 그 프로젝트 실험 중 하나로 학생들은 태양열 조리판을 활용한 ‘라면 끓이기’에 도전하고 있다.

### “환경지킴이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아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봉 교사는 ‘광주환경교육연구회’를 결성해 운영했다. 이곳에서 체험환경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해 광주시 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환경학교 교육용 자료도 함께 개발했다. 2005년에는 이 연구회의 교재개발 및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교육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 2014년 12월에는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모 ‘대한민국 녹색기후대상’ 교육부문 환경만 단체 우수상도 받았다.

그동안 환경교육을 실행에 옮기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 교사들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것. 교육 재능기부 교사들이 주로 40~50대이다 보니 20~30대 선생님들의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곤 하지만, 아직 실현되진 못하고 있단다. 간혹 몇몇 젊은 교사가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환경지킴이는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따라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계시고요. 환경학교와 인연을 계기로 대학진학을 환경공학과로 결정한 학생도 있습니다.”

봉병탁 교사는 앞으로 환경학교든, 교내 환경과학동아리 활동이든 학생들 스스로 숲과 나무, 자연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 재미있고 신나는 운동회 준비

# 둘이 합쳐 달리는 이어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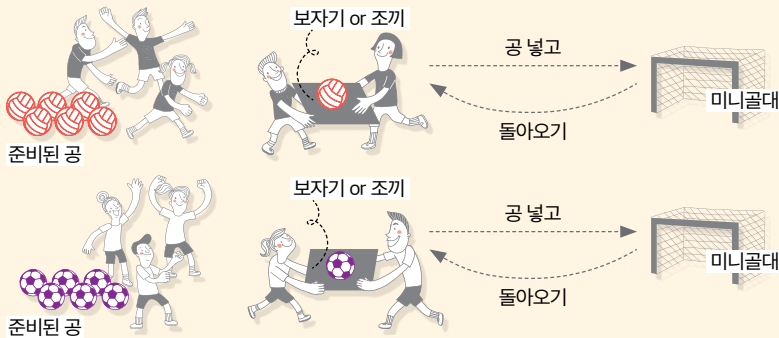


###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어달리기는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통을 이어가며 달리는 활동도 재미있지만, 조금 색다른 이어달리기를 추천합니다. 힘을 합쳐 달리거나 아이스크림 달리기는 놀이 자체로서도 재미가 있어 아이들이 쉽게 빠져듭니다. 아이들의 달리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별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활동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호흡도 맞춰보고 일석이조의 놀이를 아이들과 해보세요.



### 놀이 방법을 알아봐요



- ① 이어달리기로 진행합니다. 양쪽에 미니 골대 혹은 바구니 등을 놓아 골대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 ② 팀 대결로 진행을 하며 두 친구가 천이나 팀 조끼를 마주 잡고 공을 올립니다. 이 놀이는 이 공을 가지고 골대까지 가서 넣는 놀이입니다.
- ③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아이들은 달려가서 골대에 공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약 중간에 공을 떨어트리면 얼른 주워 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진행합니다.
- ④ 공을 넣은 후에는 같이 손을 잡고 뛰어와서 다음 선수에게 조끼를 전달합니다. 팀 대결을 통해서 빨리 공을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합니다. 학년 능력에 따라 공의 종류나 크기를 달리하여 운영해도 재미있습니다. 골을 넣는 형식이 아닌 한 바퀴를 뛰는 이어달리기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놀이는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동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의 크기를 달리하고 천뿐만 아니라 막대를 두 개 잡고 그 사이에 공을 올려서 진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응용하면 다양한 놀이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㉞

**응용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달리기**

**놀이 방법**

- ① 미니 콘과 탱탱볼을 준비합니다.  
탱탱볼이 없으면 배구공으로 하셔도 됩니다. 콘을 뒤집어 잡고 그 위에 공을 올려서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만듭니다.
- ② 신호와 함께 반환점까지 달리는 활동으로 뛰는 중간에 공을 떨어트리면 공을 주워 그 위치에서 이어서 달리도록 합니다. 다 달린 후에는 다음 선수에게 전달하여 이어달리기로 진행합니다.



**놀이 효과**

큰 준비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공을 신경 써야하기 때문에 달리기 실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도 좋습니다. 달리는 재미도 느끼고 공을 배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놀이활동입니다. 간단한 놀이로 더위도 날리고 가을 운동회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놀이시범 인천신현초 1학년

## DBI교육연구회

## 드라마 기반 활동으로 참된 교육 실천

DBI교육연구회에서 DBI는 Drama-Based Instruction을 의미한다. DBI는 수업에서 드라마(Drama)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몸과 오감을 이용해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DBI교육연구회의 시작은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파주 경기영어 마을에서 진행된 중등 경기 드라마 연수의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이 시작되었다. 현재 연구회 대표는 고양중학교 고혁 선생님이다. 그는 2013~2014년 미국 유학 휴직 기간에 케이시 도슨(Dr. Kathy Dawson) 교수로부터 DBI를 배웠으며,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초·중등 약 180여 명의 한국 선생님들과 30여 명의 미국, 칠레, 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선생님들이 함께 DBI교육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중에서는 2015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학기단위로 과정 중심의 영어뮤지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학년 모든 학급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등장인물을 분석한다. 학생들이 직접 대본



을 수정하고 의상제작 및 안무, 제스처 및 동선을 구성한다. 학급의 모든 학생이 릴레이 형태로 무대 위에서 영어뮤지컬 발표회 시간을 갖는다. 모든 결과물은 네이버 밴드 및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등 SNS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선생님들과 공유되고 있다. 대송중 백은신 선생님, 퇴계원고 김도경 선생님, 목암중 이지애 선생님 그리고 고양중 지호영 선생님 등도 각 학교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DBI 활동들을 실천하며,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학생들이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며 양국 간 다른 문화를 배우기도 하였다.

DBI교육연구회는 경기중등영어교육연구회의 협력연구회이며, 학기 중 매월 1회에 걸쳐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외국어교육 서북지역 워크숍 및 문화예술 수업 나눔 등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 대표인 고혁 선생님은 DBI 활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수업 중 DBI 기법을 활용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소통하며 나누고,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앞으로 DBI의 저변이 더욱 넓어져 더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DBI를 통해 교육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

글. 황형준 명예기자(신원초등학교 교사)

- 📍 지역 : 전국
- 👤 대상 : 초·중등 교사
- ☆ 대표 : 고혁 고양중학교 교사





## 읽기 부진 학생 교육지원 연구회

# 읽기 부진으로 닫힌 배움에 손 내밀기!

읽기 부진이란, 한글 음운인식이나 해독이 되지 않아 한글 읽기가 어려운 학생, 또래에 비해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거나 부정확하게 읽는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에서 읽기 영역의 학습부진학생, 국어과 성취도평가에서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생 등이 해당된다.

어느 학교나 일정 비율의 읽기 부진 학생은 존재한다. 읽기는 모든 기초·기본 학습의 출발점으로 그동안 현장 교사들이 읽기 부진 학생의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읽기 부진 학생 교육지원 연구회는 이러한 읽기 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지원 체제를 준비하고자, 뜻을 모은 대전지역의 초·중등·특수교사 10명으로 올해 결성되었다.

연구회 대표인 김기웅 대전법동초 교사는 “읽기 곤란으로 인한 학습 부진 학생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선생님들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던 교육청이 뜻을 모아 연구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연구회 결성 계기를 말하였다. 그 누구라도 배움의 출발점인 한글 터득 단계에서부터 낙오를 경험하지 않도록 교실 현장에서 개별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한글 기초문해 지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연구회 목적이 있다고 한다.


연구회는 올해 초 배움찬찬이연구회 연구팀을 초청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글 문해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한글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로 읽기 부진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여 단위학교 교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읽기 부진 학생 인식 개선 및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내년에는



대전지역 초등학교에 배부함으로써 학교 현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양성 과정 중 저학년 교실과 학습도움실에서 진행되는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지도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문해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활동을 계획 중이다. 시교육청 해당업무 담당 장학사는 “올 하반기 3개월간 진행되는 한글 문해교육 심화과정에서 발음 중심 문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읽기 부진을 진단하고 직접 적용해 본다. 나아가 전문가의 일대일 슈퍼비전을 통해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도의 조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성된 문해교육 전문가의 단위학교 컨설팅 활동으로 현장 교사들의 읽기 부진 학생 지도의 어려움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글은 모든 학습의 시작이다. 한글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다. 배움의 출발점이자 한글 터득 단계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지원을 위해 읽기 부진 학생 교육지원 연구회 회원들은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글 이지호 명예기자(대전원신초 교사)

📍 대상 : 대전

👤 대상 : 읽기 부진 학생 교육지원에 관심 있는 대전지역 초·중등·특수교사

☆ 대표 : 김기웅 대전법동초 교사



기획

# '교육 협치'의 새 시대 연다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8월 28일 처음으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 협치'의 상징 기구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된 목소리를 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혁신을 함께 일궈가자는 것.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01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02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자치’ 본격 논의 시작

#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글. 신진용 교육부 교육자치강화지원팀 서기관

얼마 전 주말, 어느덧 애 엄마 아빠가 되어버린 대학 친구 가족들을 집에 초대했다. 교육부에 근무하다 보니 직업병이 되어버렸는지, 그중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버린 두 친구에게 귀동냥을 하고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물어본다.

현장 교원으로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 기대만큼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내비친다. 어려운 학생에게 보살핌과 배움을 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눈빛에 생기가 돌지만, 곧 개학을 앞두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새로운 일들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 교육자치로 학교 자율화 이끈다

‘악순환’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실제로 학교에 적용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한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몫이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적어도 교육정책만큼은 더 이상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약 만 천여 개의 학교, 43만여 명의 선생님이 바로 교육정책의 주인공이고, 그들만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의 아이도 소홀함이 없이 학교와 선생님의 보살핌 아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배움을 누릴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가 바로 ‘선



생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자치를 통한 학교 자율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과거 정부주도의 상명하달식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단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나,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현장으로부터의 교육 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한다.

##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3대 중점과제 실천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3대 중점과제를 즉시 이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우선, 그간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초·중등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230여 개가 넘는 각종 국가시책사업이 3월 개학이 한참 지난 후 각종 계획과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 전달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기존 학교의 교육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예산을 집행해 혼란을 주어왔다. 이제는 교육부의 시계를 앞당겨, 국가시책 사업을 19개 내외로 대폭 개편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전년 10월, 학교에는 1월에 배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과 개학 후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하여 2월을 신학기 준비 기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2월 1일자 교장 발령을 위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계획을 전년 11월 이전에 수립하여 학교에 송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연구학교를 재정비하고 학기 시작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필요한 관행과 제도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을 일반자치단체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종 평가로부터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한다.

### ‘교육자치정책협의회’로 첫걸음 내딛다

이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라는 긴 항해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담아, 지난 8월 28일 학교혁신의 문화를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교육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꽃피운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전문가, 그리고 교육 현장의 대표가 함께 학생, 선생님, 학부모 앞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부터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난상토론에 가까운 자유 발언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걸음을 학교 현장에서 시작한 만큼, 앞으로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여건을 조성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돌려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버린 친구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들 얘기만 쏟아내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자치' 본격 논의 시작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접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 강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 기구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출범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 개혁의 동력을 자율과 분권에서 찾겠다는 의지이다. 교육 혁신에 성공적인 선진국들이 교육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교육제도 분권화를 시도한 것과 맥을 함께 한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소통·협력의 자세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함께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해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협의회에 앞서 김상곤 부총리와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수업 혁신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각산고등학교 학교 매점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



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교육자치협의회는 로드맵에서 ①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17) ②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18) ③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19~)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키로 했다.

## 학교 현장이 원하는 3대 중점과제 연내 시행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은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자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 ① 학교의 교육 시기에 맞추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18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초·중등 국가정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

- 01 학교 협동조합에 참여한 삼각산고 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02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02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되었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17년 기준으로 234개 사업, 1,000여 개에 이르던 내역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바뀌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 가능성을 열고 행정 부담은 경감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 말까지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한다.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도 조기 선정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강화해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기는 한편, 학년도 개시일도 유연하

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③ 시·도교육청 조직·인사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

영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되어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혁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첫걸음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 지침을 우선 정비하고, 1·2단계에 걸쳐 법령 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혁신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교육부 6대 국정과제 ①

#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문재인정부는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실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는 교육혁신을 이룰 6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 6대 실천과제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정과제2.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국정과제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국정과제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국정과제5.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국정과제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부는 OECD 국가 대비 부족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7년 25% 수준의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2년까지 40%로 높이고 '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제도는 '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출발선인 유아기의 실질적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과 돌봄은 이제 더 이상 가정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방학 중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출발선인  
유아기의 실질적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및 교원의 업무경감 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내  
실화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돌봄기능을 강화

하여 지역사회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 실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20년부  
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중이 높은 편  
으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복지 확대의 흐름 속에서 대규모 재정소  
요를 수반하는 만큼 '19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확  
대, 입학금 폐지 또는 축소,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18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  
상을 늘리고('17년 기초~3분위 → '18년 기초~4분위, 약 6만명 수  
혜자 확대 예정) 향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조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단계적 인하를 추  
진할 계획이며('17.2학기, 2.5% → 2.25%), 대학 입학금도 폐지(국  
립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  
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22년까지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실입주 3만 명) 확충을 목표로 대학 캠퍼스 내·외  
에 다양한 유형(행복(공공·연합)기숙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국립대 BTL 기숙사 등)의 기숙사를 건립  
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학생 진로·희망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를 통한 자율권 기반 마련
'15. 9.~'20.	'18.~'21.	'19.~'22.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및 평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 설계 지원
교과별 학생 참여 중심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및 평가 구현 ⇨ 교과 내 학생 진로· 희망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 유도	모든 고교에서 문·이과 등 과정 구분 없는 공통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여건에 따른 과목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확대	진로·전공과 연계한 고교 이수 과목 안내 및 상담 전문성 신장 ⇨ 진로관련 선택과목 집중 이수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설계

▶ 국정과제2.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초·중등 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이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정착시키고, 진로·희망에 따른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며, 사·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 별 맞춤형 교육 설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육은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약하게 될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및 1수업 2교사제

교육부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기조로 1: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고교다양화 정책은 취지와는 달리 희망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입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외고, 자사고 등의 우수학생 독점 등 부작용이 많았다. 새 정부는 우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년 말까지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반고 전환 희망학교 등이 교육과정 파행 없이 안정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함으로써 자율적·협력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내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학생 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지역 및 학교 간 체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진로 체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휴학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실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원 전문성 신장을 추진한다.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문화를 개선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②

# 초등교사 바다·강에서 생존수영 배운다

“강물 속에 들어가 보니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무서웠다. 막상 생존수영을 실제 해보니 몸이 뜨는 것이 신기했고 짧은 시간임에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한강 생존수영 연수에 참가한 이정훈 미사초 교사의 말이다. 이은희 대전대화초 교사는 “1.5m의 높이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훈련이나 뒤집힌 보트 밑을 통과할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힘들었다. 수영장과 실제상황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경험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다나 강은 수온이 낮고 물속의 시야도 좋지 않으며 파도나 조류에 의해 몸의 균형을 잃기 쉽다. 익수자를 한 눈에 파악하기도 어려워 즉각적인 구조 활동도 쉽지 않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생존수영이 꼭 필요한 이유다.

## 물놀이 안전 대처능력 키우는 ‘생존수영교육’

지난 8월 17일 한강양화공원 내 해양스포츠훈련장에서 초등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연수가 진행됐다. 초등교사의 생존수영 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응급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의 ‘생존수영전문교육’이 이뤄졌다. 물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부터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체온유지 방법, 몸으로 보내는 구조요청, 최소한의 스킨링이나 기본배영 등으로 물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자기구조법 등을 훈련했다. 그밖에도 배가 뒤집혔을 때를 가정하고 어두컴컴한 배 밑을 통과하여 생존수영으로 구조정에 오르기까지 과정과 강 중심부에서부터 생존수영으로 강을 건너는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다.

생존수영에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내고 신체 부력을 이용해 물에 뜨는 훈련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오현수 강사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당황하여 신체의 부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신체의 부력을 이해



01



02

01 02 물에 빠졌을 때, 구조자의 눈에 잘 띄도록 몸으로 보내는 구조요청을 훈련하고 있다.



03

하고 활용하는 생존수영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 준다.”며 “생존수영을 배우고 물에 뜨는 도구를 이용하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보다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

실제 생존수영을 배운 학생들이 물놀이 사고에서 안전하게 구조된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생존수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원 대상의 현장에서 배우는 생존수영 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 377명이 연수를 마친데 이어 올해에는 초등 교사 299명이 7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바다, 강 등에서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하였다. 생존수영을 배운 교사들은 향후 학교와 관내 시·도교육청 수영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 김석권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올해로 생존수영 교원연수 2년차다. 주요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수중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생존수영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역적 시설 여건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초등 선생님들의 생존수영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기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선생님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생존수영 원리를 잘 전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석권 과장은 또한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농어촌지역에 이동식 간이수영장 설치 등 생존수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년 초등학교생들의 수영 실기교육 활성화와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143개 교육지원청의 35만 명이 수영장 실기교육을 마쳤다. 올해에는 177개 교육지원청의 8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 완료단계인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을 연수에 적용하여 올해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03 \_\_ 조교가 물속으로 안전하게 입수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04 \_\_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

05 \_\_ 연수자들이 해상구조용 라이프가드와 구명환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04

##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물놀이 안전 대책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부각되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총괄과를 신설(15.1)하고, 「안전교육 7대 표준안(15.2)」 발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5.12)」 추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16.6)」 등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물놀이 및 수난(익수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ZERO)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3년간(14~16년) 발생한 물놀이로 인한 학생 사망은 총 61명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망원인이 수영미숙(42.6%)과 안전부주의(32.8%)라는 점이다.

그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안전교육만을 담은 기존 대책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 사고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개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했다. 물놀이 사망원인 중 수영미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 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영실기 교육을 강화한다. 2017학년도에는 초등 3~5학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이상의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4시간 이상을 생존수영 시간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셋째, 학교 밖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 단위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 민방위대,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원봉사단 등과 협력하여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②



05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안전총괄과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주요사항 분석

오는 9월 11일부터 2018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전년대비 수시모집 비율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모두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349,776명 중 74.0%에 해당하는 258,920명을, 전문대학은 86.4%인 178,213명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실>

## Q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모집인원 349,776명 가운데 74.0%에 해당하는 258,920명의 학생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이는 전년대비 3.5%p 증가한 것으로 '16학년도에는 67.4%(240,976명), '17학년도에는 70.5%(246,891명)의 학생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206,300명으로 이중 86.4%인 178,213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17학년도 84.7%, 178,790명).

표1. 최근 3년간 대입전형 수시모집 선발 비중

	구분	수시 모집인원(명)	총 모집인원(명)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4년제 대학	2016학년도	240,976	357,278	67.4%
	2017학년도	246,891	350,020	70.5%
	2018학년도	258,920	349,776	74.0%
전문대학	2016학년도	181,106	215,317	84.1%
	2017학년도	178,790	211,200	84.7%
	2018학년도	178,213	206,300	86.4%

## Q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 고른기회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 모집인원은 늘어난 반면, 논술전형에 의한 선발인원은 줄었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경우, 수시 모집인원의 86.4%에 해당하는 223,712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80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 늘었으며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35개교입니다(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 고른기회전형은 전년대비 2,611명이 증가한 38,655명(14.9%)을 선발하며,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도 전년대비 971명 증가한 10,987명(4.2%)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반면, 논술전형은 전년대비 1,728명이 감소(11.8%p 감소)한 12,961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 2018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4년제 대학은 74.0%, 전문대학은 86.4%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Q 전문대학 수시모집 전형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전문대학은 전공 특성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3년·4년으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전공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다르니 지원 대학의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전문대학은 이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 4개의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1개 또는 2개 이내의 요소만 활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위주전형 79.5%(141,615명), 면접위주전형 10.3%(18,280명), 서류위주전형 7.7%(13,747명), 실기위주전형 2.5%(4,571명) 순으로 선발합니다.

**Q 전문대학에서 비교과 입학전형이 실시된다는데.**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성적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직업적성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실시합니다. 비교과 입학전형은 입시단계부터 취업과 연계시켜 평가하는 맞춤형 입학전형으로서, 이번 수시모집의 경우, 204개 학과에서 2,256명을 선발합니다. 전형방법은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직업적성검사, 학생부 활동사항 등의 비교과 요소와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는 그룹 면접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의 취업의지, 소질·적성, 인성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됩니다.

**Q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접수 기간은 2017.9.11(월) ~ 9.15(금)로 하며, 이 기간 동안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가 이뤄집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수능 전(수시1차)과 수능 후(수시2차)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서접수를 실시합니다. 1차 수시모집은 2017.9.11(월) ~ 9.29(금), 2차 수시모집은 2017.11.7(화) ~ 11.21(화)입니다. 원서접수 후에는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하길 바랍니다.

**표2. 최근 3년간 대입전형 수시모집 선발 비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4년제 대학	2017.9.11(월) ~ 9.15(금) 중 3일 이상		2017.12.15(금)	2017.12.18(월) ~ 12.21(목)	2017.12.22(금) ~ 12.28(목)
전문대학	1차	2017.9.11.(월) ~ 9.29(금) 19일간	2017.12.15(금)	2017.12.18(월) ~ 12.21(목)	2017.12.22(금) ~ 12.29(금)
	2차	2017.11.7.(화) ~ 11.21(화) 15일간			

**Q 수시모집 시 주의사항은 무엇이며, 입시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4년제 대학은 수시모집 시 6회로 지원횟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대학,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은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행복(공공·연합)기숙사 늘리고 대학생 생활비 부담 줄이고



월 24만 원으로 원룸은 물론, 사립대 기숙사비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편의시설과 방범 시설 등이 우수한 행복공공기숙사가 제공되어 대학생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거지.

**체력 단련실**

**회의실**

**범죄 예방**

**학습 공간**







교육논단

#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의 현재와 미래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으로

#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글. 이홍수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성장은 감성·오성·품성을 갖추는 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과 그 교육의 의의(意義) 및 역할에 관한 인식은 크게 왜곡되어 있다. 그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예술 활동과 교육이 시간적, 질적인 면에서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이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에는 물론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과 행복의 여하에 깊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이다. 더 늦지 않게 문화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예술 활동을 크게 활성화해야 한다. 예술교육이 감성과 오성(悟性), 품성을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이끌면서 정신을 높이고 가슴을 채워주는 데에 최선의 길이고, 개인과 가정,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끝내 성취해야 하는 것은 학생 모두를 온전한 성장에 이르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내면상태를 갖추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기 학생들의 온전한 발달을 위해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 왔고, 행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내면의 조건을 만들어주려 노력하지 않았다.

4, 50년 전만해도 ‘행복한 삶’이란 보통사람들에게 꿈같은 얘기였다. 결핍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결핍의 시대를 견디어낸 우리에게 물질의 시대, 고도의 문명사회가 급속히 다가왔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많이 가진 사람조차 여전히 불만과 불안, 갈등과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다. 풍부한 지식과 고도의 문명은 풍족한 삶과 편리한 생활에 기반이 되는 조건이지만 온전한 성장과 진정한 행복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와 교육계가 교육의 근본과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온전한 성장과 진정한 행복은 성장기부터 꾸준히, 그래서 점차 견고하게 다져지는

내면의 평화와 정서적 만족감, 정신의 고양,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의 연장선 위에 형성되는 내적 상태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예술 활동과 충실한 예술교과교육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 예술교육은 ‘의미를 감성으로 소통하는 경험’

학생들이 수업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표현하면서 여러 예술 활동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대부분 내용을 배워 기억하는 지식획득이거나 활동방식을 익혀 따라하는 예능행위에 머물러 있다. 작가나 작곡가의 예술적 의도를 탐지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를 읽을 때 시험 대비를 먼저 생각하고, 음악시간에 정확하고 능숙하게 노래 부르는 것만을 중히 여기는 교사와 학생이 많이 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개입시켜볼 기회는 없고, 자신의 느낌과 상상으로부터 예술적 의미를 생성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다.

작품의 의미 공감과정이 생략된 재생행위로는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자신의 의지와 감성과는 관련 없는 타인의 작품들을 먼 볼 보듯 다루는 활동에서 깊은 정서적 공감이나 충족감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예술교과에서 ‘재미있게, 신나게, 중압감 벗어내기!’를 외치면서 학생들의 감각과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정신을 쇠락하게 하는 교육자가 많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겁다. 재미있게(fun)와 스트레스 풀기는 가정에서 TV를 볼 때, 친구들과 놀 때, 오락시간에 하는 것으로 족하다. 예술 활동과 교육은 마음을 가꾸고 세우고 높이기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사유와 성찰이며, 정서적 충만함과 정신의 고양을 위한 내면 소통의 영역인 것이다.

예술교과에서 다루는 작품과 소통에 관련되는 모든 경험과 학습은 감성과 오성의 적절한 협응을 통해 이루어질 때 의미

감각적 이성을 통해 대상을 처음 만날 때  
학생이 가지는 이미지와 느낌(feeling)을  
교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어느 종류, 어떤 내용의 작품을 다루며 어떤 활동이나 학습을 하는 경우라도 감각적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모두 동원하여 느낌과 생각, 상상과 통찰, 판단과 창조의 내면작용과 그들 간의 협응을 활발하게 이룰 때 예술의 경험과 교육이 온전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교과 활동이나 학습에서는 다루는 대상의 현상과 요소들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고 읽으면서 오감을 통한 감성작용의 과정을 거치는 바, 감각적 이성을 통해 대상을 처음 만날 때 학생이 가지는 이미지와 느낌(feeling)을 교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첫 인상과 이미지, 느낌이 경험소재나 학습대상의 중요성이나 자신과의 관련성, 호기심과 흥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 음악, 미술 교과학습에서 작품을 처음 만날 때 ‘아! 중요한 것이구나.’, ‘참 아름답다!’, ‘내 일이네.’, ‘엄마가 경험한 일이라.’라는 이미지나 느낌을 가지면 그것이 흥미를 낳고, 그로부터 생각과 상상이 시작되며, 그때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감성적 지각은 예술적 의미 소통의 동인이 되며, 예술 생성 및 소통의 원리에 관한 오성적 학습에 바탕이 된다.

**활동이나 학습의 초기에 형성된 이미지와 느낌 위에 대상이나 내용의 현상, 요소들을 비교하고 탐색하며, 관련짓고 관계 맺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오성의 과정이 경험과 학습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과 학습은 어느 과목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히 예술교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술작품이 담고 있는 높고 깊은 의미를 아름다운 매체와 방식으로 소통하고, 작품 속의 관련성과 관계성을 탐구하는 가운데 예술 생성 및 소통의 기본과 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우리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을 지금의 위축된 상태에서부터 구출해내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성장기는 예술 활동의 바탕인 미적 감각과 기초적인 기능, 감성과 오성의 기본을 갖추는 시기이며, 학교와 가정의 예술경험은 평생의 수준 높은 문화적 삶에 기반이 되므로 교사와 부모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 그에 합당한 환경과 경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첫째, 자녀와 제자들이 강한 감각적 자극을 과잉 경험하면서 감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하며 감성에 손상을 입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미적 감성, 정서적 만족, 정신의 고양에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예술은 왜 만들어지며 예술과 행복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예술은 인간 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상태로 창출되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가치 있는 의지와 아름다운 열망을 세우고 삶 속에 구현하는 길을 생각해 본다. 셋째,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의미와 가치를 수용, 표현하면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며, 작품 생성과 소통의 원리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학습을 이루도록 이끌어준다. ㉠



**이흥수**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음악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외부 초청 강연 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1990),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1992), 『음악여행』(1994) 등이 있다.

#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감형 교육으로

글. 한경숙 분당초등학교 수석교사

오고 싶은 학교,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수업,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며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길이 아닐까?

수석교사로서 필자는 전교생을 가르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34학급의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급당 연간 10시간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을 하며 의미 있는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예술교과와 타 교과와의 예술적 요소를 연계하여 융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고 체감하게 한다.

## 문화예술 주제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

초등학교 국어과 문학 단원 중 동시를 배우며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예로 들어 보자. 움직임으로 동시 표현해 보기, 교육연극 기법 중 정지동작으로 시화 꾸미기, 핫시팅(Hot seating, 집단의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행하는 기법)으로 시인과 만나기, 빈 의자 기법으로 시 속의 인물이나 사물 탐색하기, 동시 낭송하기, 여러 가지 사물을 활용하여 소리 탐색 후 동시 낭송을 위한 배경음악 만들기, 동시의 느낌을 파스텔이나 색연필을 이용하여 색이나 그림, 선 등으로 나타내고 느낌 이야기하기, 비주얼씽킹으로 동시 감상 표현하기, 동시 주제로 창작 움직임 댄스 만들기, 나만의 동시 짓고 시집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예술활동 중심 수업을 한다.

또한 교과 목표와 성취기준을 근거로 교과서에 실린 내용 대

신 도서나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학과 예술작품을 선정하여 온 작품 읽기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예술적인 요소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에 맞는 예술 활동과 작품을 감상하며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으로 즐겁고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분당초등학교는 ‘성남시 교육연극 나눔학교’로 지정받아 3학년 5개반 10시간씩 예술강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인 예술강사와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다보면 교육연극에 대한 전문성도 배우게 된다. 학생들 또한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니 호기심과 재능을 더 발휘하게 된다.

##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문화예술 꽃 피다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형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과의 MOU를 통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공동 운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BOOK극성 도서지원 사업, 교육연극 지원 사업, 교사 문화예술연수를 통한 교사의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뮤지컬과 오페라 관람을 지원하였고, 작품 선정과 학생 안전 및 인솔 계획 교육과정 운영 등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은 성남문화재단, 예산 지원 및 기획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진행하였다. 장르 역시 흥미 위주의 공연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



한 문화 공연 관람을 선정·운영하여 학생들의 반응과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교사는 물론 학부모, 문화예술 관련자 등 지역의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 그들을 자원봉사 혹은 시간강사로 초빙하여 창체 동아리 활동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안내 및 홍보 활동, 지역문화예술 현장체험학습,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작품을 지역문화축제에 발표, 가정에서 문화예술 분위기 조성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문화예술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문화예술의 힘

교사에게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쉽지는 않지만 수업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반응, 결과를 생각하면 힘든 만큼 보람과 행복감이 크다.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보며 그들의 상상력과 잠재능력,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소름끼치는 감동의 순간들을 자주 경험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힘이 이처럼 강하고 깊게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을 자극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할 줄이야…….

학생들은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블록수업으로 80분을 이어서 하는데도 지루한 줄 모른다. 학생들의 수업 후의 배움정리를 하며 느낀 소감들을 보면, '예술수업은 보물이다. 왜냐하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기 때문', '눈이다. 예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기 때문', '게임이다. 폭 빠져들고,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보며  
그들의 상상력과 잠재능력,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소름끼치는  
감동의 순간들을 자주 경험한다.

재미있기 때문', '블랙홀이다. 나를 점점 빨아들이기 때문'과 같이 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

오감으로 표현하며 느낌이 있는 살아있는 공부, 이성과 감성이 만나는 공부,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오고 싶은 학교, 하고 싶은 공부,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해 주는 행복교육의 길,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⑤



**한경숙** 교사는 서울교대 졸업 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초등음악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분당초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 성남교육연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과 교육연구 강사로 강의를 다니는 등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 사업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열쇠이기도 하다. 최근 수업탐구 교사공동체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수업변화를 모색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수업탐구 교사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개선 ‘협력학습’에 날개 달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자발적인’ 교사 수업 공동체 형성을 교실수업 개선 정책 중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개선 의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교사 수업 공동체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7학년도에는 초등학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사연구



동아리(협력학습, 인문반영수업) 222팀, 교사 소연구회(교과별, 주제별) 7팀, 교사수업탐구공동체 26팀, 초등 수석교사 수업친구연구회 22팀, 교원연구회 13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2017년에 전국 최초로 ‘수석교사 수업친구 연구회(이하 수수친)’를 운영하고 있다. 수수친 연구회는 수업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 년 동안 운영하는 동료장학 연구회이다. 초등 수석교사 22명과 수업에 대한 배움

에 목말라하는 교사(수업 친구) 132명이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22개의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 또한 1년간 ‘수업 철학, 수업하기, 수업 보기’의 방법을 수평, 수직적 동료 장학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수친의 날’은 각 팀별로 매월 1회씩 서로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자신의 수

업을 공개하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이를 통해 각자가 가진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철학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수수친 연구회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직 경력 30년이 넘었지만, 늘 수업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수친 연구회를 통해 수업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고 말한다.



## 서로의 지식과 경험 나누는 '지족수업축제'



“커피 한잔 할까요?”  
대전지족고(교장 김형승)의 다  
락방(수업탐구 교사공동체)인  
‘지족수업축제’의 시작은 항상  
이렇다.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자 일부러 모이지 않는다. 한 잔의 차를 앞에 두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어느새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족수업축제’의 공식적인 멤버는 8명이지만, 1학년 교무실에 있는 12명이 모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사들끼리 서먹하던 3월에는 보드게임으로 서로를 알아갔고, 서로의 수업을 이야기하

다보니 ‘길’을 주제로 한 주제통합 수업도 진행했다.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과에서는 ‘책 쓰기 프로젝트’를, 사회과에서는 ‘반전동화쓰기’를, 수학은 ‘수학 작문’을, 미술에서는 ‘젠텁글’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의 즐거움을 누렸다. 1학기 말에는 교과 데이 행사를 통해 수업의 결과물을 나누기도 했다.

굳이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점이다. 지금까지 ‘교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주제 속에서 장주영 교사는 ‘교사의 경제’를, 이소이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연설했다. 앞으로도 미술치료, 수업평가, 비주얼 씽킹 등의 주제로 멤버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교사들의 자발적 공부모임 ‘교원 씨앗동아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인 ‘교원 씨앗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무려 1,225팀을 선정,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질문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민주적 교무회의 등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교원 씨앗동아리는 배움 중심 수업, 수업과 교육과정, 평가혁신, 인성교육 중심 수업, 토의토론 수업, 회복적 생활교육 등 10개 분야 중 교사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동료 간 개방과 공유로 개인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협력적 배움과 성장 풍토를 조성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수업, 교육과정, 평가, 생활지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팀당 운영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30시간 이내 연수 학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워크숍, 운영 능력 향상 리더십 연수를 실시해 학습공동체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공동체 간 자료 및 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 구봉초, 교사 잡지를 만들다



학교의 기록이 공문서로 시작해서 공문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학기 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종합일람표로 한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 일본 학교에서 잡지를 발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도 학교 잡지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 학교 잡지 속에 교단일기나 수업이야기를 담아보자고 했다. 2015년 시작은 서툴렀다. 하지만 4월, 5월 호수가 늘어 갈수록 수업과 아이들 이야기가 잡지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잡지가 나오면 그 달에 나온 잡지를 보고 교육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제는 미리 다음 달에 글을 쓰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선생님들 수업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생님들의 변화도 반기웠다. 처음에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던 선생님들이 글을 채워주고 또한 그 글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기록이 자신뿐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실천을 나눌 수 있어서 교사 모임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의 나눔(공유)이 함께 성장하는 뿌리가 되었다.



## 학교끼리 통하면 즐겁다 '까·통·락'



세종특별자치시 전 동초등학교, 소정초등학교, 전의초등학교는 북부지역 교육혁신지구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의회 '까·통·락'을 함께 만

들고 첫 모임을 7월 10일 전동초등학교에서 가졌다.

'까·통·락'은 '선생님이 만나면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라는 믿음으로 비슷한 규모의 작은 학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교육과

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이다. 첫 만남에서 세 학교의 교사들은 학년군별 그룹으로 나누어 모임 일정과 협의 주제를 정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교직경력 2년차의 전동초 박유리 교사는 "다른 학교의 경험 많은 동학년 선생님들 만나 학년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경험 등을 대화로 나누니 마음이 든든하고, 다음 만남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동학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까·통·락'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지속적인 전체, 그룹별 모임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관성 강화 연수



전남교과교육연구회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4월, 6월에 연수를 개최하였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 유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공개수업이 이뤄졌으며 2차 연수에는 7개 교과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수업공개를 위해 지난 5월 4회에 걸쳐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사회과분과 회원 선생님들은 매주 주말에 만나 사전 수업 협의회를 실시하여 공동 사과의 수업안을 만들고, 모의 수업을 통해 학습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사회과분과 위원장인 김용허 연구사(전남교육연구원)는 "1차 연수회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 강화를 위한 안내가 있었다. 2차 연수에서는 수업 속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평가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9월에 있을 3차에서는 실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위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학교혁신의 큰 동력 교사학습공동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혁신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를 2015학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자발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는 학습공동체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두고 대표교사 워크숍,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 중간 및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2016학년도에는 일반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핵심교원 양성 연수, 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단위학교 운영비 지원, 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하게 학교를 지원하였다. 2017학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원이 적은 작은 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일교과, 동일직위, 인근 학교별로 모이는 학교 밖 교사 학습공동체를 발굴·운영 지원을 마쳤다.





**강원도교육청**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수요일은 교원학습공동체의 날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수요일마다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멈춘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교사들은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화천 사내고는 매월 1·3주 수요일에 사내중 교사들과 함께 비주얼 씹킹, 마을교육공동체, 창의공감교육 동아리를 운영하며 수업 혁신 사례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 강릉 문성고는 수요일마다 '마중물 교사 독서 연구회'를 비롯해 맞춤형 교육과정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또 수요일 오후 책읽기, 글쓰기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주 금요일 5교시에 1, 2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모둠별 독서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동해광희고와 삼척고는 학생 부종합전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대입지원관과 함께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학습 모임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다.

학교별로, 지역단위의 교사들끼리 이루어지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연구 활동은 학교를 넘어 강원도 전체로 확산되기도 한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업나눔 한마당'이 좋은 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운영하는 교과연구회들이 한데 모여 수업혁신의 방법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 토요일에 열리는 행사임에도 3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월계초, 수업모형 만든 즐거운 교육수다



월계초등학교(교장 한성범)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동료교사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

월계초는 올해 초 '학생 참여형 수업 어떻게 할까?'를 논의했고 그 결과 교사들이 모여 '꿈지락 수다', '토닥토닥', '어울림' 등 3개 학습동아리를 구성했다. 이후 매달 1·3주 수요일을 '학습공동체의 날'로 정하고 4월 19일 첫 모임을 시작했다. 학습공동체 중 '꿈지락 수다' 동아리는 '꿈은 배움(知)이 즐거워야(樂) 이뤄진다.'는 학교 브랜드처럼 학생들의 즐거운 배움을 위해 월계 수업 모형을 만들면서 교육수다를 나누고 있다. '토닥토닥' 동아리는 좋은 책을 읽는 교사 독서 동아리로 수업을 위한 다양한 도서를 읽고 연구·공유한다. '어울림' 동아리에선 교사들이 학생이 돼 다양한 체육 교육 방법을 몸으로 배워가고 있다.

최미소 교사는 "꿈지락 수다 동아리에서 좋은 수업기술을 나누고 수업 모델로 만들어가면서 흠어져있던 여러 수업기술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돼 가고, 수업 모델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 좋은 수업 위해 선생님이 뭉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행복배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현장의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과 실천 중심의 실행학습 체제로 전환하여 일부 개별 연수가 수업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

행복배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17 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 역량 강화과정 직무연수'를 청주교대 교육연수원에 위탁해 30시간 운영하였는데, 110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연수에서 학습한 영역별 프로토콜을 학교의 학습공동체에 직접 활용하고 다음 연수에서 사례를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의 실행적인 연수는 앞으로의 연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창의융합교육 선도...

##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 미국, 일본 사례

지난 7월 14일 '세계 방과후학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2017 방과후학교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홍콩, 미국, 독일, 스위스, 대만,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일본, 한국 등 총 10개국의 방과후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모든 발표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미국과 일본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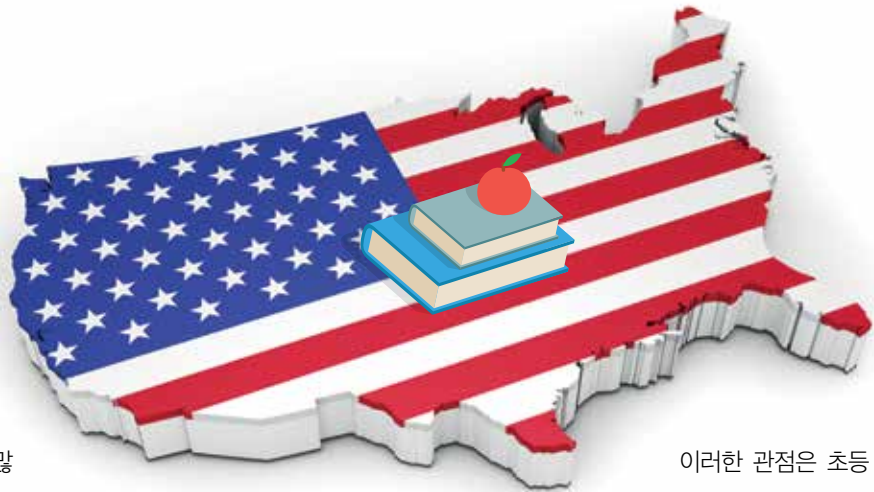
목적으로 한다면,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역량의 개발을 목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사회정서역량을 고려하여 0-5세 단계에서는 활발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10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사회정서학습 기회 제공하는 미국의 방과후학교

우선 미국 사례를 발표한 하버드대학 길 노엄(Gil Noam) 교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정서학습(SEL: Socio-Emotional Learning)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기술이 많은 사회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생겨나고, 삶의 양식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려면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정서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노엄 교수는 '글로벌 모델(Clover Model)'을 제시하면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능동적 참여', '적극성', '소속감', '성찰'과 같은 사회정서역량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교육이 학업 성취와 같은 인지적 능력의 함양을 주된



이러한 관점은 초등 돌봄교실에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기 청소년기인 11-15세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소속감을 갖는 경험이 필요하고, 16세 이후에는 자기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거나, 사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과후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방과후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의 '마을형 방과후학교'

일본 문부과학성 지역사회협력과 와타나베(Eiji Watanabe) 과장은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 사례를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을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마을형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와타나베 과장이 발표한 일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쌍방향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일방향 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앞으로는 방과후학교를 매개로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 모델이 중요하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아동 양육 문제는 물론 고령화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 등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교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교사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School Management Council)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와타나베 과장은 이를 '사회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School Curriculum Open to the Society)이라 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에는 '학교지원 지역본부(School Support Regional Headquarter)'를 두고, 커뮤니티 코디네이터(communitiy coordinator)를 배치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방과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 학급(After School Classes for Children)을 운영하고 매년 약 6,290만 엔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건강고용복지부에서도 방과후 아동의 돌봄과 놀이 활동을 위한 장소로 방과후 아동클럽(After School Children's Club)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약 5만 7,480만 엔을 투자하고 있다. 와타나베 과장은 향후 각 부처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전국의 2만개 초등학교구(Elementary School District)와 1만개 일반자치구(District)에서 통합 또는 파트너십을 갖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일본 사례는 마을공동체 기반 방과후학교 운영과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방과후학교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방과후학교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발전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고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방과후학교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의 방과후 학교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

# 따돌림을 예방하는 3가지 학급운영의 기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래문화가 형성되며 그룹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돌림을 예방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 1) 학교폭력지수 활용하기

선생님은 교실에서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바라보십니까? 교실의 폭력도 그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폭력지수'는 핀란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지수	
1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따돌림
2	나쁜 표정을 짓거나 나쁜 눈빛으로 바라 봄
3	나쁜 별명을 붙이고 놀림
4	나쁜 소문을 내거나 모욕을 줌
5	못살게 굴거나 노골적으로 따돌림
6	위협하고 협박함
7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망가뜨림
8	발로 차거나 몸을 때림
9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힘

보통 교사들은 학교폭력지수 5인 '못살게 굴거나 노골적으로 따돌림'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두고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두고 보면 안 됩니다.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급의 평화에 예민한 선생님은 폭력지수 1인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따돌림'부터 바로 개입하여 초기에 대응하고 따돌림을 예방합니다. 은근히 따돌리는 것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 안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지수'를 교실에 게시하고, 혹시 친구에게 별명을 부른다면 '별명을 부르는 것도 학교폭력지수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교실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토의해야 합니다.\*

## 2) 올베우스 4대 규칙 활용하기

노르웨이에서는 1982년 10~14세 청소년 3명이 집단 괴롭힘의 결과로 잇따라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괴롭힘 근절 실천운동(Manifesto Against Bullying)' 캠페인을 전국에서 벌였다고 합니다. 베르겐 대학의 심리학자 뎀 올베우스(Dan Olweus)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년 사이 학교폭력 사건이 50% 이상 감소하였고, 이후 영국, 독일, 미국 등으로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역시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올베우스 교수가 개발한 획기적인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교실 중앙에 올베우스 4대 규칙을 게시하고, 하루에 규칙을 하나씩 알아보며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에는 '우리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4대 규칙

- 규칙1** 우리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규칙2**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울 것이다.
- 규칙3**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 규칙4** 만약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규칙을 제시하고 '장난'과 '괴롭힘'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대개 '장난'이었다고 핑계를 댁니다. 하지만 '장난'과 '괴롭힘'의 차이는 괴롭힘 당한 피해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날은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규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따돌림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따돌리는 세력의 입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불쌍하기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사람들이 저리 싫어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학기 초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아이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꼭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 3) 한 달에 한 번, 학급살이 설문지 활용하기

교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익명으로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이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날 아침자습에는 '○월 학급친구 생활 살펴보기' 학습지를 나누어주고, 익명으로 한 달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달에 친구들을 가장 존중하며 대하준 친구', '지난달보다 말과 행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친구', '아직도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우리 반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우리 반 친구 중에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는 친구', '이달에 선생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말' 등을 그 까닭과 함께 남기게 했습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는 선생님의 인정보다 반 아이들의 평화에 대한 역동이 전해지면 더욱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 친구들의 격려가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지는 2학기를 응원합니다.

지난 학년보다 말과 행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더 친절하게 대해줌”

“투투치고 다니지 않아서”

“나쁘게 하는 말을 재미있는 말로 바꾸었다.  
행동도 좋아지기는 했지만 장난을 줄여야 할 듯”

### 처벌 중심의 학급경영 방식 버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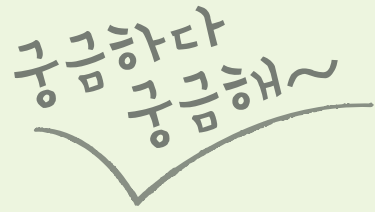
1 교실에서 학교폭력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학기 초에 웃으면 아이들에게 알보인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행동 수정을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억압'이라는 생활지도 방식이 결과적으로 은연중에 학급에 '지배 구조'를 낳게 됩니다. 얼핏 무섭고 야단치며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님의 교실은 조용하고,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굶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은 더욱더 골이 깊어지고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커집니다.

2 지나치게 허용적인 교사의 방식이 좋다고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허용적인 교사의 학급은 갈등이 잘 드러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학급은 통제력을 잃고 더욱더 무서운 학교폭력 상황으로 번져가기도 합니다.

3 교사가 교실 속 한 아이를 예뻐하면, 시샘하는 아이들이 뒷담화로 '잘난 척 한다', '교사에게 아부한다.' 등으로 비난을 하게 되고, 아이는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것은 교사에게 자주 지적받거나 꾸중을 듣는 아이들이 왕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4 교사의 모둠별 보상제도도 더 많이 왕따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둠에서도 평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5 학기 초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놀이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입니다. 놀이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해 반 아이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12



# 끼리끼리 뭉치는 아이들, 그들만의 법칙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끼리끼리 뭉칠까? 마음의 성숙도(원가족에서 발달한 적응과 위축, 배려와 폭력 등), 능력(놀이와 학습, EQ와 IQ 등), 학급 편성(같은 학급이나 아니냐), 가정환경(유사한 처지인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자발적으로 뭉친다.

### 3종류의 끼리끼리

이론가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잘하는 애, 보통 애, 못난 애의 3유형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 같다. 잘하는 애들은 '전교 등수가 나오는 착한 애' 혹은 '전교 등수가 나오고 집안이 빵빵한 애'다. 전자는 옛날식 범생이고, 후자는 요즘식 범생이다. 이들은 서로 알아보고 어울린다.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면 사립 초·중학교와 특목고를 다니느라 보통아이들과 격리되어서 보고 듣는 것이 상당히 달라져버린 우등생,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보통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 공부도 잘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는 우등생이다. 하지만 숫자가 적어서 전체 집단의 아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아이들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한, 100명 중 70명쯤 되는 아이들이다. 공부는 중위권이고 동네학원에 다니고 수업시간에 자다 깨다 한다. 노는 게 모범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나가지도 않는다. 규칙도 양심껏 지키지는 않고 남에게 피해가 없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무시하는 편이다. 그 대신 친구를 중시한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짝끼빠빠(짝 데 끼고 빠질 때 빠지기)를 잘 하는지, 짝겨(짝 때 끼었는지)했는지, 초딩강퇴(수준 낮다고 무시 받음) 소리를 듣지나 않을지 긴장한다. 여학생들은 32명의 학급원들 중에서 서로 말이 통하는 아이가 7~8명, 어울려 다니는 아이가 3~4명,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가 1~2명이 되도록 친구관리를 한다. 남학생은 농구나 축구를 같이 하는 애가 7~8명, 점심을 같이 먹고 게임 얘기를 나눌 애가 3~4명,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애가 1~2명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부분 이 일에 성공하는데, 보통아이들의 폭이 넓고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학급의 대부분이 보통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아이들은 자신이 보통아이들의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못하는 애들은 사회성이 없는 애(왕재수, 나대는 애), '바보' 같은 애(서툴다). 배후에는 해결해야 할 가정문제나 신체·성격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것까지 이해하고 배려하긴 어렵다. 그래서 못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뭉친다. 하지만 소수여서 자칫 따돌림이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날라리로 불리는 잘 노는 애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잘 놀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 집단에 들지 않는다. 또한 공부 못하는 애와 아픈 애(정신지체아, 장애아)도 못하는 애는 아니다. 아이들도 '엄마, 내 친구 등수를 왜 물어? 갠 친구야!' 혹은 '갠 아픈 애야. 힘든 애라고!' 하면서 관대한 태도로 실드쳐 줄 망정 업신여기지 않는다.

## 못하는 아이들의 약점과 보통아이들의 편견이 합쳐지면서 나쁜 결과를 만든 것일 뿐, 서열이 절대적인 유리천장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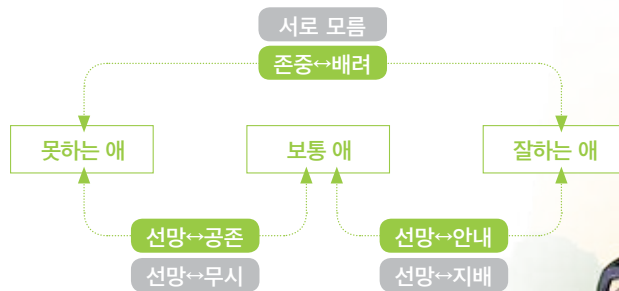
### 끼리끼리의 역동

3집단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서열과 관계다.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말을 섞을 일이 별로 없다. 백곰과 사자가 만날 일이 없듯 '잘난 애'와 '못난 애'는 서로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좋은 학급에 가면 우등생이 열등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열등생이 고마워한다. 후자는 서열과 관계가 조화를 이룬 학급풍토를 가진 덕분이다. 잘하는 애는 보통아이에게 '학급의 규칙은 이걸로 하자' 혹은 '음악회 표를 사왔으니 모두 1장씩 사줘' 하면서 주도하고, 보통아이는 '알았어' 하면서 따른다. 논리나 정보에서 못 당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모두 군소리 없이 따를 수밖에.

반면에 학급을 이끈 애들이 '학급 규칙을 만들 때 1안과 2안이 있어. 어느 것이 좋을까?' 혹은 '학생회에서 학교 음악회를 하는데 다들 참석하면 고맙겠다.' 하고, 보통아이가 '그런 사정이 있었네. 알려줘서 고마워.' 한다. 전자는 통제했고, 후자는 안내했다. 후자가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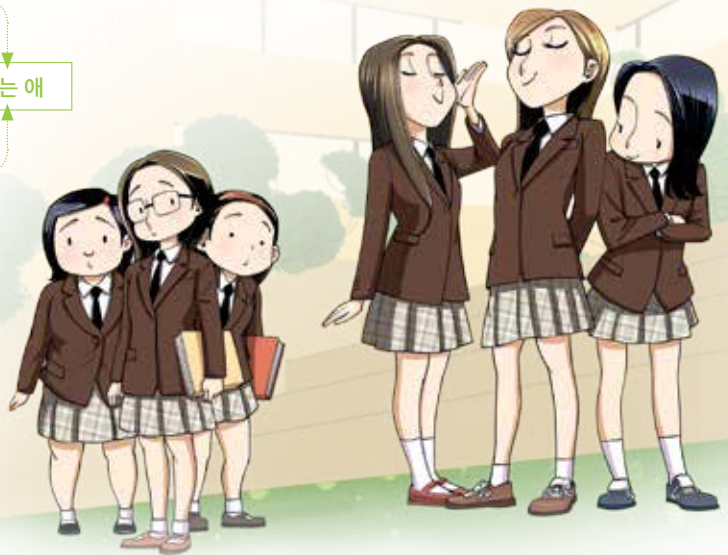
보통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이 끼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일본인 나이토 아사오는 학교에 카스트가 있고 폭력과 이지메로 서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못하는 아이들의 약점과 보통아이들의



### [그림] 또래집단 간의 악순환

편견이 합쳐지면서 나쁜 결과를 만든 것일 뿐, 서열이 절대적인 유리천장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교사들조차 학급운영에 편리하다고 잘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중시하면 그게 그만 권력이 되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나타난다. 반면에 3자 간 잘 소통하도록 다리를 놓으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 ⑤



# 배우고 꿈꾸는 강원도 교육여행



캠스강원 참가자들

95여 개국, 5만여 명의 세계인이 하나 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 강원도 이곳에서는 도내 18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역사와 전통, 자연과 축제, 다양한 레포츠를 만나볼 수 있다. 전국 최대 170여 개의 농촌체험마을은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과 레일바이크·짚라인 등 레포츠 체험까지 '교육여행'으로 강원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캠스강원'

'캠스강원'은 즐거운 교육여행을 위해 강원도가 지원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내 1박 이상, 6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여행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여기서 '캠스'는 '재미있는'의 복수형 발음으로 GEMS(Gangwondo Education CoMmunication Service)를 의미한다.

캠스강원은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함께(Together)'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팀빌딩 프로그램 체험 코스다. △학교 이름, 단체 구호 협력과 희망문구, 동계올림픽 오륜기 만들기 등 도미노 게임 △학교, 학생, 교사에 관한 문제풀이, 강원도 관련 상식 퀴즈 풀이 등 도전 골든벨 △4~5가지의 협력 연결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미션 99초 등 학생과 교사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화(Culture)'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와 공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교육적 정서를 높이는 김유정의「동백꽃」연극 공연 △강원도의 특색 있는 문이화를 소개하는 강릉단오제 공연 △강원도 내 활동하는 뮤지션과 미술가 등 지역별 공연자들의 무대인 Musicians & Magic이 아이들을 반긴다.

마지막으로 '재미(Fun)'는 장기자랑과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유쾌한 레크리에이션 체험 코스다. 여행의 백미인 재미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친구들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참가자들의 춤과 노래 등 볼 수 있는 장기자랑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부모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 등 '촛불 & 캠프파이어'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캠스강원은 연중 진행되며, 교육여행을 떠나기 1개월 전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e-mail : leemayi@korea.kr)



## 교과서 속 으뜸 명소 '가득'

강원도로 떠나는 교육여행에서는 교과서에서나 만날 수 있는 명소들도 두루 둘러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교과서 속 으뜸 명소를 찾아보는 재미를 놓치지 말자.

## 시내 한복판에 동굴이 있다?

### 동해 천곡천연동굴

동해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로, 현대화된 건물과 아파트 사이에 4~5억 년 전에 생성된 천연동굴을 볼 수 있는 전국 유일한 곳이다. 천곡천연동굴은 총 길이 1,400m로, 규모는 다른 석회암 동굴보다 작지만 석회암 동굴의 전형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중 700m가 관람객에게 개방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을 닮은 이순신 석순은 천곡동굴의 백미. 그 외에도 국내에서 가장 길다는 천장 용식구(溶蝕溝)와 피아노, 마리아 등 다양한 모양의 석순, 종유석을 만나 볼 수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동굴이다.

아울러, 미술교과서에서도 수록되어 있는 논골담길에 조성된 벽화마을과 묵호 등대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로 가족과 함께 둘러보면 좋다(문의 ☎033-539-3630).



천곡천연동굴





전통 한지 만들기

교과서에 나오는 동해의 다른 으뜸명소 [친곡천연동굴에서 이동한다면~]

- 망상해수욕장(사회, 지리) : 거리 약 13km, 소요시간 19분
- 추암촛대바위(지리) : 거리 약 10.8km, 소요시간 22분
- 약천문화마을(역사, 국어) : 거리 약 9.7km, 소요시간 26분
- 목호논골담길(미술, 사회) : 거리 약 5.9km, 소요시간 15분

승려이자 저항시인, 민족대표를 찾아서

인제 만해마을

만해 한용운은 불교인, 문학인,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만큼 국어와 도덕, 한국사 교과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된 「님의 침묵」을 쓴 시인, 만해 한용운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인제 만해마을로 떠나보자.

만해마을에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외국시인과 한국시인의 작품 310편이 동판에 새겨져 있어 곳곳에서 시를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만해문학박물관, 만해학교, 문인의 집, 사원보전 등에서 문인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님의 침묵 산책로는 만해마을이 자리 잡은 내설악의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색과 명상, 생태자연 학습장이 조성되어 있는 숲 속의 작은 교실과 같은 곳이다. 한편, 만해마을에는 일반인도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 여유를 즐기며 여행하기 좋다. (문의 ☎033-462-2303).

만해마을 만해문학박물관 전경



교과서에 나오는 동해의 다른 으뜸명소 [만해마을에서 이동한다면~]

-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역사, 지리) : 거리 약 22.1km, 소요시간 32분
- 용늪(대암산)(지리) : 거리 약 27.2km, 소요시간 39분
- 곰배령(지리) : 거리 약 34.8km, 소요시간 49분
- DMZ평화생명동산(사회, 지리 등) : 거리 약 30.1km, 소요시간 52분

우리나라 전통 종이 한지체험

원주 한지테마파크

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하여 손으로 직접 떠서 만든 종이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만의 전통 종이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종이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쓰다가 삼국시대에 독자적인 한지를 만들어 냈다.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지는 인쇄술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원주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를 원주의 특산물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예로부터 한지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좋을 호(好)와 닥종이 저(楮), 호저면이라는 지명이 원주시에 있는 것도 한지의 고장 원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명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2006년 원주시가 한지산업특구로 지정, 한지테마파크는 한지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지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종이 이전의 기록물, 종이와 한지의 역사, 한지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한지 역사실 외에도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필통, 보석함, 닥종이 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문의 ☎033-734-4739). ㉠

교과서에 나오는 동해의 다른 으뜸명소 [한지테마파크에서 이동한다면~]

- 치악산(사회, 지리) : 거리 약 8.6km, 소요시간 27분
- 박경리문학공원(국어, 지리) : 거리 약 3.2km, 소요시간 10분
- 원주역사박물관(역사) : 거리 약 4.1km, 소요시간 12분
- 구룡사(사회, 역사) : 거리 약 23.3km, 소요시간 37분
- 간현관광지(지리) : 거리 약 14.3km, 소요시간 28분

출처: 『자연을 읽고 마음을 건다』(강원도 교육여행 가이드북)  
사진 제공: 강원도청

#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Q**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병설유치원에 임용되었는데,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지고 보육교사로서 전임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경력 관련(「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774

**Q**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의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년도별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년도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제처 누리집(www.law.go.kr) 행정규칙 메뉴에서 검색 가능

###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일부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교원복지연수와 ☎044)203-6488

**Q** 재외한국학교에서 재학(2년 미만) 중 한국의 중학교로 전학 시 해당 중학교의 정원 내에서 전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원 외 인원으로도 전학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외한국학교는 국내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으로 간주되며,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의 전출입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이동 시 국내학교와 동등한 전출입 절차를 따르므로, 정원 내 전입인원이 산정됩니다. 다만, 전·편·입학 세부사항 관련 내용은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전입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소관 교육청에 해당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정책과 ☎044)203-6454

#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 맨발로 걸으며 마음 터놓는 상담해요!

아이들은 부모와 도시의 구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맨땅 위에서 맨발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맨발로 걸으며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는 나누지 못한 이야기로 심리적 위안도 받고 있다. 맨발 걷기교육을 하는 최순나(여, 52세) 대구월암초등학교 교사는 “학



교에서 매일 실시하는 맨발 걷기교육이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할 학생과 손을 잡고 먼 곳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 어색하지 않다. 개인의 고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대구월암초등학교 4학년 이혜원 양은 “맨발 걷기가 끝나도 계속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발은 고생했지만, 기분은 정말 상쾌했다.”고 하였다.

8월 19일 대구 한국일보 주최 제12회 문경새재 맨발 걷기

페스티벌 행사장 입구에 맨발학교 교사동 아리회(회장 권택환, 남 52세, 대구교육대학 교수)에서 맨발 걷기 지도 사진을 전시했다. 또, 회원들은 맨발로 하는 맨발줄넘기, 맨발 투호, 이판사판 뒤집기 등의 게임에도 참가했다. 유은옥(여, 51세) 대구 아양

초등학교 교감은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와 조약돌을 감상할 수 있다. 매우 즐거운 마음 힐링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맨발 걷기는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하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자신감을 길러 준다. 또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평화로워지므로 맨발 걷기와 함께 하는 상담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큰 효과가 있다.

글. 김영근 명예기자(퇴임교장)

## 교육 현장 포착!

### 선생님들의 맘과 열정

여름방학 동안 전국 곳곳에서 열정을 쏟으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매진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명예기자들이 담았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2017 혁신공감학교 리더 연수' **조원표**

“이번 연수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위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혁신 공감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 연수 '더불어 성장하는 초등 읽기교육' **김민중**

“안도현 시인은 ‘남이 찾지 않은 것을 찾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이 좋은 글을 쓰는 원동력’이라 말했다.(중략) 교사들의 수업 개선을 향한 자발적 교육열이 대단했다.”



인천광역시 '국어, 수학, 영어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김은성**

“안전과 미래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해양 안전교육과 미래교육 연수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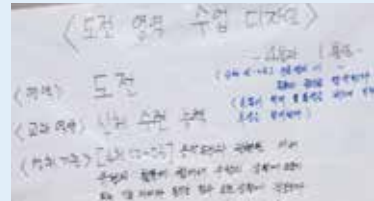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주관 '2017 중등1급 정교사 중국어과 자격연수' **최병권**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방학 내내 강의 들었습니다. 과제물 제출과 논술 평가 등을 준비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새내기 교사라는 티를 벗고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주최 '쉽게 배우는 인터넷 광고와 생활법을 교사 연수' **황초희**

“무겁고 습한 날씨의 여름방학 중에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 강의마다 열중한 선생님들의 모습이 큰 귀감이 되었다.”



공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주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김광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수업을 디자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정중심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전지에 기록하여 벽에 붙이고 걸러리 워크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중략)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선생님들의 열의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을 선도할 119소년단 지도교사 연수 **신재일**

“119소년단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청소년단체로서 1963년 창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제자를 위한 선생님들의 공연!



지난 여름방학 경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는 방학을 맞은 영주제일고 학생들과 영주시민을 위해 '제자사랑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도내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들로 조직된 경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는 올해로 51회째 교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경북 도내 각 지역을 매년 찾아가는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7월 21일 오후엔 방학을 맞이하는 영주제일고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찾아가는 제자사랑 음악회'를, 저녁에는 '영주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공연은 독창, 중창,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독주, 판소리 한 대목, 경북T오케스트라와 경북중등음악교사 합창단 출연이 더해져 지역민·제자·교사가 함께하는 성대한 음악 축제로 거듭났다.

글. 하현우 명예기자(울진고 교사)

## 포스텍 무한상상실 MOVE MAKER's



포항공과대학교 무한상상실에서는 Move Makers Move Me 프로젝트를 상반기부터 여름방학 동안 실시했다. Move Maker's 프로그램은 3D프린팅, 드론, 과학, 창의활동을 청소년들만 집중으로 하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부모,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 10대부터 50대까지 창작을 의미하는 Make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Maker를 주제로 과학이라는 고정관념을 떠나 무엇이든 만드는 Do It Your Self 컨셉으로 참여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했다.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을 직접 수선하는 가족공방, 목재로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목공방, 메이커스 전문가 양성(자격증반), 학부모 무한상상실, 초·중·고 대상 M4썸머스쿨 등을 추진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경상북도도 포항시가 지원하는 '무한상상 창의과학문화 확산사업'이 추진된다.

글. 김동현 명예기자(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 넓은 세상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다



순심교육재단(이사장 박헌동 블라시오 아빠스)은 순심고등학교와 순심여자고등학교 학생 32명을 선발해 7월 19일부터 11일간 미국 동부지역을 탐방하도록 했다.

2013년 이후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미국 탐방은 학생들의 '4성(적성, 인성, 지성,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탐방대는 워싱턴의 토머스 제퍼슨과 링컨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훌륭한 리더로서의 꿈을 키우고, 하버드와 예일, MIT와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재학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우수 인재들의 자기주도학습법과 글로벌 인재로서 거듭나는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 뉴욕 현대미술관,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의 뉴욕 증권거래소 등도 두루 둘러봤다. 이번 탐방을 통해 임현제(17) 학생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로에 대해 더욱 깊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전보다 한층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글. 조동욱 명예기자(자천초등학교 교사)

## '매직 프로젝트' 부산항만물류고 탐방



교육부의 '매력적인 직업계고(MAGIC '매직') 사업으로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교장 조성규)가 선정됐다. 물류고는 매직 사업 신청 시 학생이 행복한 공간, 학생이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60학급에서 24학급으로 줄면서 생긴 유휴 교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층마다 휴게 공간 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쉬는 시간을 활용한 학년별 30분 체조시간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물류고는 인성 지도 분야인 진로상담부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매직으로 그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진로상담부의 전문 선생님을 배치·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고가 매직 프로젝트인 '아이조아(I-JOY)'로 부산을 대표하는 특성화고, 매직으로 대변되는 특성화고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글. 최석원 명예기자(학부모)

## 화보

### 우리 학교 참 예뻐요



부산초등학교(교장 신기동)에 예쁜 하트 모양 구들이 피어났다. 마칠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있어 모델로 삼아 “하나 둘 셋” 그림을 담아보았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얼굴에 오직 즐거움만 가득하니 내 마음까지도 편안하다. 오늘도 하늘이 참 아름답다.

사진·글\_ 문승욱 명예기자(부산초등학교 교무행정)

### 찾아가는 취업센터, 행복드림버스



대전에는 찾아가는 취업센터라 불리는 ‘행복드림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드림버스가 가는 곳은 주요기업이나 대학, 아파

트단지, 도서관 등입니다. 순회홍보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에서의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연중 쉬지 않고 운영되므로 구인·구직자들에게 1년 내내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행복드림버스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가 바로 구직사이트에 올려주거나, 해당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매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서비스는, 현장에서 바로 적성탐색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_ 손성섭 명예기자(충북대학교 교직원)

### 안동영문고 체육중점학급 해양훈련 참가



안동영문고등학교(교장 김주동) 체육중점학급 학생들이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포항, 경주 등에서 하계 해양훈련 캠프에

참여했다.

영문고는 체육중점학교로 선정된 2015년부터 매년 하계 해양훈련 캠프를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캠프는 스포츠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동료애와 교사와 학생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계획되었다.

학생들은 첫째 날에는 포항 남구 송도해수욕장에 위치한 해양안전체험센터에서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AED사용법, 구명동의 착용법 등을 배우고 실제 바다에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경주 블루윈 워터파크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문고는 교육부 지정 체육중점학교로 스포츠중심학교로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글\_ 심규성 명예기자(영문고등학교 교사)

## 우표박물관에서 독립운동가 만나요!



서울 중앙우체국 지하에 위치한 우표박물관에서는 김구, 유관순, 김좌진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념우표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야기전'이 8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열렸습니다.

'독립군 최대의 승리',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남자천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 등 1907년 을사늑약과 헤이그특사 사건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16가지의 사건들이 평소 보기 어려운 기념우표들과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우표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_ 김경민 명예기자(학부모)

##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열려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가 국립외교원 및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 맞는 이 캠프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미래희망지구 주관하여, 한·일·중 청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3국 청년교류 행사이다. 한·일·중 3국의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 간에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캠프로 개최되었다.

한·일·중 대학생 각각 30명이 선발되어, 3국 아이디어 토론, 3국 대학생 고충 나누기, 3국 교류 경험담 발표 등을 통해 한·일·중 대학생들 간에 이해를 높이고, 3국 협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_ 김병찬 명예기자(대학생)

## 서울미래유산 역사탐방 인기



지난 8월 5일 서울특별시 주최하고 서울신문사,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회차 「2017년도 서울미래유산 역사탐방」이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김미선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소주제는 '서울팔방 동동촌(동심이 보내는 메시지)-어린이대공원'이다. 아이들은 해설사의 지도에 따라 전래동화마을에 있는 여러 동상들을 보고 어떤 동화인지 맞춰보기도 하고, 평생 어린이를 위해 살았던 소파 방정환 선생 동상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찍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이소영 씨는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서울미래유산 역사탐방은 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11월 둘째 주까지 운영한다."라고 말한다(문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02-2133-2548, 2549, <http://futureheritage.seoul.go.kr>).

글\_ 정소영 명예기자(대학생)

## 전주교대 2017 어린이 교육캠프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경희)에서 '2017학년도 어린이 교육캠프'가 열렸다. 어린이 교육캠프는 전북 지역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행사로, 매년 접수가 단기간에 마감될 만큼 인기 있는 행사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전주교대는 매년 여름방학 중에 어린이 교육캠프를 열어 과외, 학원 등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적인 캠프의 장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캠프는 전주교대 재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다. 이번 교육캠프의 프로그램으로는 과학놀이, 체육대회, 물총놀이, 화재 만들기, 협동놀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전주교대 재학생들과 어린이들은 함께 짝을 이뤄서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캠프를 총괄한 김병주 전주교대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과)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하고, 함께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예비교사로서 보람찼다."라고 말했다. 요

글\_ 김재운 명예기자(대학생)

## 웹툰 제작 총괄 프로듀서

# 웹툰기획자

외모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를 꼬집으며 대중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웹툰 ‘외모지상주의’는 순간순간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한다. 웹툰 전개 과정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작품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대중의 여가로 활용되는 웹툰(Web+Cartoon).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일도 흔한 일이 되었다. ‘내부자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등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웹툰으로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웹툰은 보편화된 문화콘텐츠로 말 그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만화를 의미한다. 과거 만화가 인쇄-출판에 국한되었다면, 웹툰은 발전된 IT에 기반하여 이동식 모바일 기기를 매개로 만화가 제공되는 형태이다. 단순 스캔한 디

지털만화 형식, 스크롤기반의 웹툰, 특수효과와 사운드 첨가, 앱 형태 등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웹툰 산업은 다른 산업과 연계가 매우 뛰어난 콘텐츠로 광고(배너, PPL, 기업), 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 웹툰기획자는 웹툰 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작품을 발굴하고 작가나 작품관리 등에 관여해 업무를 조율하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유통, 관리, 서비스 등 웹툰 제작 전반에 걸쳐 기획·관리를 책임지는 총괄 프로듀서다.

웹툰은 하나의 작품에서 다양한 관련 분야로 파생하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발전하였고 웹툰 분야의 분업화-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작품의 구성부터 작가 관리,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 매니저로서 웹툰기획자에 대한 역할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 웹툰기획자는 콘텐츠 제작, 유통, 관리, 서비스 등 웹툰 제작 전반에 걸쳐 기획·관리를 책임지는 총괄 프로듀서다.

### 웹툰기획자가 하는 일

- ☑ 웹툰 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작품을 발굴하고 작가나 작품관리 등에 관여해 업무를 조율하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유통, 관리, 서비스 등 웹툰 제작 전반에 걸쳐 기획·관리를 책임지는 총괄 프로듀서다.
- ☑ 작품을 분석하고 일정진행을 관리하며 작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 ☑ 작품의 콘셉트를 잡고 그림 작가나 스토리 작가를 섭외하여 제작 여건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최근 인기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소재로 전문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를 섭외해 작품을 제작한다.
- ☑ 작품이 완성되면 서비스할 플랫폼을 찾아 론칭하고 비즈니스 영상, 공연 등의 콘텐츠 재사용 관리까지 맡게 된다.
- ☑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매니지먼트와 수익의 배분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 ☑ 프로모션 진행 시 콘텐츠 편집과 독자 관리, 웹 환경과 기술을 고려한 기능 및 서비스 개선, 이벤트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참고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http://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http://www.kocca.kr)  
 한국만화영상진흥원 [www.komacon.kr](http://www.komacon.kr)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www.koscas.or.kr](http://www.koscas.or.kr)

#### 참고문헌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직종별 직업사전』



#### 적합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만화를 좋아하는 '덕후'에게 적합하다. 웹툰 작가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는 필수. 출판사나 잡지사 등에서 기획이나 작가관리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거나 만화의 스토리 작가나 그림 작가로 활동했다면 유리하다.



#### 필요한 자격은?

만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없지만,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만화전문가, 애니메이션 기획 전문가 등 학과수료증을 부여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입직에 도움이 된다.



#### 필요한 공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재미와 웃음의 소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상황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풍부한 표현을 위한 언어구사능력은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줄 수 있다.



#### 어디서 준비하지?

웹툰 기획과 직접 관련된 학과보다는 작품을 만들거나 만화 산업을 교육하는 학과에서 준비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스토리텔링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활동 영역 및 진출 분야

포털업체와 전문 웹툰 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웹툰이 기존 사업과 광범위하게 접목되면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광고, 드라마, 공공기관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 전망 point

웹툰 산업은 콘텐츠 시장에서 콘텐츠 이용매체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발전하고 있다. 지금은 웹툰 작품을 유통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포털서비스가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웹툰 전문 에이전시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②

## 대학 수시전형 준비 노하우 ②

# 내신 성적 관리가 합격의 관건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의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14만 935명(40.0%)으로 전년도보다 357명 증가했다. 전체 모집인원이 늘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세대와 동국대가 2018학년도에 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주요 대학들 상당수가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을 늘리고 교과전형 모집인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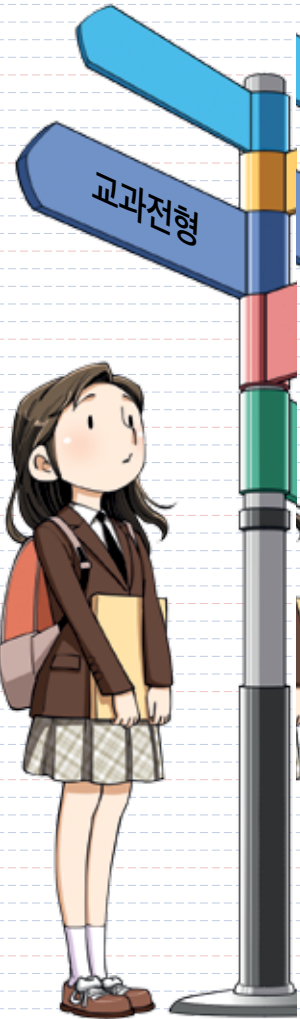
### 지방 국립대학 교과전형 비중 높아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교과 성적 관리를 착실하게 잘한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좋다. 고1에서 고3 1학기까지 내신 성적 관리가 합격의 관건이다. 특히, 학년별 교과 비율에 차등을 두는 대학은 3학년의 경우 1학기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3학년 때 교과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끝까지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다. 이 전형은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 예측이 쉽다.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기에 내신 관리가 수월한 일반고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내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원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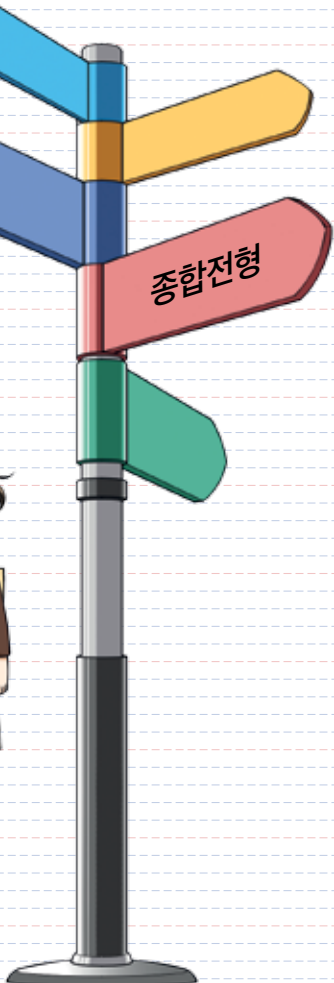
교과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시행한다. 특히 지방 국립대학의 교과전형 비중은 여전히 높다. 부산대의 경우 교과 100%로 1,085명을 모집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교과전형보다 훨씬 높다. 인하대는 교과 100%로 743명을 모집하여 수도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교과전형이 없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등이 있다. 서울여대는 교과 100% 전형을 신설했다. 최상위권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에는 고려대만 유일하게 고교추천 1 전형에서 400명을 1단계 교과 100%(3배수), 2단계 면접 100%로 선발한다.

교과전형을 지원할 때는 목표 대학의 반영 교과, 반영 비율(교과별, 학년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영 교과는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 모든 과목이다. 명지대는 국·수·영·사·과, 덕성여대는 인문은 국·영·사, 자연은 수·영·과, 경기대와 서울교대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 우송대, 한서대 등은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며, 삼육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중 3개 교과를 반영하는 등 다양하다.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교과 성적 관리를 착실하게 잘한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좋다.  
고1에서 고3 1학기까지 내신 성적 관리가 합격의 관건이다.



광운대, 단국대, 아주대처럼 계열별로 교과별 가중치를 달리하는 대학이 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의 비중이 높다. 이 대학들을 지원할 때는 과목별 유불리를 고려해야 한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국민대처럼 차등 반영을 안 하는 대학도 있지만, 고려대·서울여대·인하대 등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의 비율로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6장의 수시 카드 중 1~2개는 교과전형을**

교과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중복합격이 많고 최초등록률도 낮아서 추가합격 비율도 높다. 이 전형은 일명 ‘학100’으로 불리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교과 100%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하 수능 최저)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교과, 자기소개서, 논술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은 총족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 공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인하대와 송실대는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를 신설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의 경우는 올해 2단계 면접을 폐지하고 교과 100%로 일괄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다.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높고 촘촘하다. 서울 중하위권 대학도 2점대 초·중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된다.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1~3등급 낮다면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수능 성적이 높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에 내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시에서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 재수생 숫자가 올해도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교과전형이 중요해졌다. 수시전형 중에서 합격 예측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수시 6장의 카드 중 반드시 교과전형 1~2개를 포함해야 할 이유다.

교과전형은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영 교과, 반영 비율, 산출지표, 이수단위 반영 여부, 실질 반영 비율, 모집인원 증감, 학과/학부제로의 전환, 수능 최저(전년도와의 변화, 영어 포함 여부, 탐구과목 반영 수, 제2외국어 및 한문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 여부) 등을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 특목고보다 내신과 수능 성적 차이가 큰 일반고 학생들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

※ 다음호에는 대학 수시전형 준비 노하우 ㉠ 논술 및 적성전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우리 아이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라(下)

지난달에 이어서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패를 통해 배운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으로 인해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패에서 오는 적절한 좌절(optimal frustration)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해본 사람은 자신감도 상승하고, 요즘 유행하는 투지, '그릿(GRIT)'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 부분은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채 칭찬만 받으며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성장배경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실패를 경험하면 이내 포기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고 심하게 화, 짜증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실패를 경험하고 배움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가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잘못 되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찾고 수정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저는 종이접기를 엄마랑 같이 하라고 권합니다. 종이접기를 하다가 막혀버린 바로 그 순간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 되겠다. 처음부

터 다시 한 번 해봐야겠어."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하나 하나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는 아주 평범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종이접기를 예로 드는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실패하는 일은 반드시 아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어야 합니다. 종이접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아이에게 종이접기를 하면서 실패를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거나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이기 훨씬 쉽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힌트를 주는 것은 좋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습관의 생활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갖도록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정착된, 일련의 자동적 행동들입니다. 여기에 시행착오가 없다면 좋은 습관이 가져오는 이점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아이가 책상을 정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책상에 올려놓을 책의 종류와 그 위치, 책상서랍별로 무엇을 넣을지를 결정하여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왜 그 자리에 책이나 물건을 두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책상을 정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획하기, 목표 세우기, 최선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해본 사람은 자신감도 상승하고,  
요즘 유행하는 투지, '그릿(GRIT)'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분류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조직화능력, 우선순위 결정하기,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유연하게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사고전환 능력 등 전두엽의 실행기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능도 전두엽의 실행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생활 습관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십시오. 자녀의 생각을 묻고, 시도를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를 시간을 두고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두뇌 계발의 과정입니다.

#### 타인을 돕는 즐거움을 가르쳐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들 역시 미국의 영재연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인성의 발달을 위해서만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쟁심이 강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이지요. 이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

으면 자신들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화를 내거나 울어버리고, 경쟁을 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그 경쟁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신이 남을 돕는, 이를테면 봉사활동을 하면 위와 같은 성향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회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가 승자와 패자로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타인을 도울 때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에 덜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쪼먹는 2가지 요소가 평가와 경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과 이번 글을 통해서 자녀의 재능을, 잠재력을 키우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②

# 시대의 폭력과 시인의 길

글. 홍정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전 『문학과지성사』 대표)

윤동주에게 가해진 것은 시대의 폭력이었다. 일본제국주의 말기라는 폭력의 시대가 윤동주를 타살한 것이다. 윤동주의 이같은 죽음과, 일본 경찰이 그에게 덮어씌운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이란 혐의는 그를 '애국시인' 혹은 '저항시인'으로 간주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윤동주를 '저항시인'이라 부르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 그것은 이 말이 윤동주의 본질적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시대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투사가 아니라 시대의 폭력을 순한 양처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는 「서시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시대의 폭력 앞에서 마음 아파한 사람이며, 그럼에도 시대의 폭력에 맞서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슬픔과 연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 슬픔과 연민의 길을 걸어간 시인, 윤동주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폭력의 종식은 폭력에 맞서는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동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폭력을 가장 확실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고통과 수난을 통해 서라는 것을 윤동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런 갈등을 겪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시 「팔복」에서 보듯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슬픔과 연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였다.

**운동주의 죽음이야말로  
폭력의 시대를 증언하는 상징이며,  
폭력을 미워해야 한다는 상징이며,  
폭력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징인 것이다.**

운동주는 「십자가」에서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 데/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썼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점점 ‘어두워 오는 하늘 밑에서’ 자신이 ‘쫓아오던 햇빛’의 길을, 다시 말해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을지 갈등을 겪었던 것이다. 운동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히 “괴로웠던 사나이/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어진 운명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나 = 운동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허락될 것인가? 이 같은 갈등 앞에서 운동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이라 썼다. 운동주가 ‘처럼’을 독립된 행으로 강조하고 ‘허락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겸손함과 부러워하는 태도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운동주는 자신에게 가해진 수난과 폭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처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렸다.

**운동주의 죽음, 그리고 그 시대의 폭력**

이런 점에서 운동주의 죽음은 그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장엄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운동주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 무고한 그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인데 — 끔찍하게 폭력적인 시대

였다는 사실이다. 슬픔과 연민의 길을 걸어간 운동주의 죽음, 한없이 선량한 운동주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폭력적 시대가 바로 그의 시대였다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주의 죽음이야말로 폭력의 시대를 증언하는 상징이며, 폭력을 미워해야 한다는 상징이며, 폭력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징인 것이다.

르네 지라르는 “갈등과 폭력의 진짜 비밀은 바로 욕망하는 모방, 모방적 욕망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맹렬한 경쟁관계라고 단언”한다. 우리 모두는 어떤 폭력으로부터 수난을 당했을 때 시원한 복수를 꿈꾼다. 자신이 상대보다 더욱 강해져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욕망은 상대를 능가하는 폭력을 준비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폭력의 악순환일 따름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최근 북한의 핵무장에서 비롯된 군비경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상대를 이기고 앞지르기 위한 상호모방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유형 무형의 폭력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운동주의 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가진 인문적 가치는 무척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주로 말미암아, 비록 운동주의 시대와 그 폭력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우리 시대가 만드는 폭력을 미워할 수 있고, 또 그런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①

# 내 삶의 심포를 더하다

## | 강화도

여행이란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 있다.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역시 강화도이다. 강화는 내가 자주 떠나는 여행지이다. 스무 살이 되어 처음 자전거 여행을 떠난 곳도 강화였다. 아무래도 강화가 집에서 가깝고 다리만 건너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랄까. 그러나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의 강화는 천혜의 요새로 불렸다. 예성강, 임진강, 한강 등 3대 하천이 흘러들어 물살 흐름의 변화가 잦고 선박 운항이 힘든 지역이다. 또 조선간만의 차가 커서 넓게 펼쳐진 갯벌로 인해 상륙할 곳이 극히 한정되어 외세의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동막해변 갯벌



## 세계 5대 갯벌, 동막해변

강화로 가는 길은 매년 변하고 있다. 이미 커다란 단지를 이룬 인천 청라를 지나 검단과 김포로 들어서면 건물들이 줄지어 지어지고 있다. 높아지는 건물들을 보며 원래 바다이고 갯벌이었던 과거를 떠올린다. 여행이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면 나는 까맣게 잊어버린 과거를 끌어 올려 새롭게 되새김질한다. 차가운 철 구조물로 만들어진 건물들 사이로 출렁거리던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 목적지는 동막해변이었다. 동막해변은 세계 5대 갯벌이라 불리는데 물이 빠지면 직선거리로 4km까지 갯벌이 펼쳐진다. 내가 도착했을 땐 물이 빠지고 매끄러운 갯벌이 그 자

태를 뿜내고 있었다. 갯벌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리고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열심히 무언가를 함께 만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썰물에는 각종 조개를 비롯한 칠게, 가무락, 갯지렁이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어린이들에게는 이것다 좋은 놀이터도 없는 셈이다. 한쪽에는 갈매기 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들의 서식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먼 해안선을 바라보고 있다. 갈매기와 다르게 모래사장에 설치된 그늘 천막 아래에는 사들이 돛자리를 펴고 앉아 쉬고 있다. 그들처럼 잠에서 깨었을 때,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을 보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인 전등사로 향해야 했다.

여행이란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01



### 고구려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 전등사

전등사로 올라가는 길목은 울창한 나무와 숲으로 이뤄져 보기만 해도 마음이 트인다. 현재 전등사 입구는 정문인 동문과 남문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정문인 동문으로 들어섰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서자 ‘큰 나무’라 이름을 지닌 커다란 나무가 반갑게 맞이한다.

강화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찰인 만큼 전등사를 둘러싼 나무들은 모두 크고 아름다웠다. 특히 대웅전 뒤로 높게 솟은 소나무들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절을 포근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그날에 잠시 앉아 나무들을 바라봤다. 바람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날아갔는지 더위도 잊고 멍하니 잠시의 여유를 누린다.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본다.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는 대학공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쫓아야 하는 스펙들이 사실은 내 미래를 위



02

### 양선구

전등사에서 더위를 바람에 흘려보내고 있는 양선구 명예기자.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양선구 명예기자는 삶의 심표를 더하는 여행지로 강화도를 추천했다.



- 01 보물 제178호 전등사 대웅전. 작지만 단정한 결구에 정교한 조각 장식으로 꾸며져 조선중기 건축물로서는 으뜸으로 손꼽힌다.
- 02 전등사에는 어느 사찰과는 달리 일주문이나 불이문이 없다. 그 대신 호국의 상징이었던 삼랑성 동문과 남문이 일주문 구실을 하고 있다. 전등사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동문
- 03 약 400년 된 전등사 느티나무
- 04 신미양요 당시 가장 격렬했던 격전지 덕진진 광성보
- 05 덕진진 남장포대



한 투자가 아니라 내 발목을 붙잡는 족쇄일지도 모른다. 진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현재에서 찾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다시 사찰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전등사에는 보물 제178호인 전등사 대웅전(大雄殿), 보물 제179호인 전등사 약사전(藥師殿), 보물 제393호인 전등사 범종(梵鐘)이 있다. 이 중에 대웅전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대웅전의 네 모서리 기둥 위에는 쫓그리고 앉아 있는 벌거벗은 여인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공사를 맡았던 목수의 재물을 가로챈 주모의 모습이라고 한다. 목수는 주모를 사랑했고 자신의 재산을 주모에게 주며 사랑을 고백했는데 주모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 재물을 잃은 목수가 주모의 죄를 씻게 하려고 벌거벗은 모습을 조각하여 추녀를 받치게 했다고 한다. 네 모서리 중 한 귀퉁이만 한 손으로 처마를 받치고 있는데 목수가 사랑을 잃고 상심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닐까.

###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 덕진진

마지막 목적지인 덕진진으로 향했다. 덕진진은 조선시대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의

군대가 덕진진을 거쳐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1871년 신미양요 때는 미국 함대와 가장 치열한 포격전을 벌인 곳이다. 그러나 초지진에 상륙한 미국군대에 의하여 점령당한 아픔이 서려있다. 그 후, 1976년에 성곽과 돈대를 고치고 남장포대도 고쳐 쌓았으며, 앞면 3칸·옆면 2칸의 누각도 다시 세웠다. 그 당시 대포가 복원된 1971년에는 사적 제226호로 지정된 바 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지만 지금의 덕진진은 평화로웠다. 멀리 강화 초지대교가 보였고 한 눈에 바다가 들어왔다. 고요하게 부는 바람, 덥지만 앓다면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다.

강화도는 지친 일상에서 쉬이 필요할 때 차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섬이다. 매일 본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니듯 가깝고 늘 똑같아 보이는 여행과 일상에도 항상 새로움이 있다. 익숙한 삶을 새롭게 느끼고 싶다면 일단 강화도로 떠나보자. ㉠

### [참고자료]

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 한국콘텐츠진흥원, 2002.

# 마음을 움직이는 생활지도 노하우 총집합!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속 변화는 거대한 물결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작은 관심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활지도 노하우를 모아봤습니다.

## 청소 특공대! 출동~!!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3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은 대학진학과 취업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기를 희망하며 '청소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학생들과 함께 '청소특공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청소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실도 쓸고 창문도 닦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양지훈 교사

## 공동체 생활에 방해되는 행동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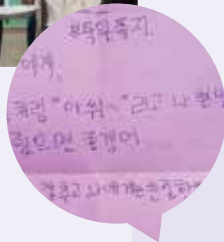
행위 표현의 환경적 요인을 찾아보고 감성적 공감을 바탕으로 학생의 행동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동시에 개인의 삶과 공동체 생활에 방해되는 과도한 표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다려 주는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충호 교사

##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일기

매일 일기의 끝에 감사하는 말을 적는 감사일기 쓰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에 우산을 챙겨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와 같이 끝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문장을 하나씩 적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인성교육, 생활지도의 시작이죠~

심지원 교사



## "친구야~"

### 나쁜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

정해진 시간 동안 혹은 짧은 음악에 맞춰 친구에게 하고 싶은 부탁을 '쪽지'에 적어 전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탁의 쪽지'는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라 놀이처럼 가볍게 진행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쪽지 형식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제시하고 아이들은 쪽지를 주인공에게 전달합니다. 마친 후에는 쪽지를 걷습니다. 부탁의 쪽지를 받은 아이는 한 번 더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생활지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가람 교사

##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는 힘

평소 학생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봅니다.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꾸중보다는 잘한 점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5월 중순, 한 학생이 학생회회장에 입후보하겠다고 추천서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장점을 가득 채워 성심성의껏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학생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이후 수업시간 태도는 더욱더 좋아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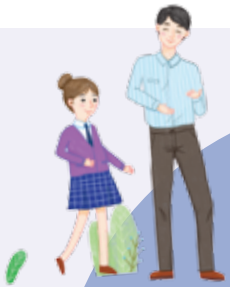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고민거리도 털어놓았습니다. 교사의 한 행동이 한 명의 학생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인 동시에 내일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이수경 교사

### 선입견을 버리면 진심이 통(通)한다

교생 시절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선입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대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은 통했고 학생들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혹 우리의 교단에서 선입견 때문에 아이들과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의 모습, 외모, 행동에 가려져 있는 본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차재홍 대학원생



### '감성 산책' 들어보셨나요?

원곡고등학교에는 학생안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감성 산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선생님께 '감성 산책'을 신청한 후 시간과 날짜를 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책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합니다. 시간이 짧아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감성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고민(학업문제, 이성교제문제, 가정문제 등)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되어 학생 스스로 나아가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감성 산책으로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아이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한은경 교사

###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 찾아볼 기회주기기

장애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며 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A4용지에 글자가 오르락내리락, 뺨뺨뺨하고, 글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적어 내려가면 차분해집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숙지하며 수행해야 할 과제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실천해 봅니다. 9월 새 학기, 장애학생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긍정적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학생들도 마음을 움직여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학기도 파이팅!

김유리 특수교사

### 함께 땀을 흘리며 벽 허문다

생활지도 전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래포(Rapport)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과 후에 학생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축구를 합니다. 대화로만 하는 상담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함께 공을 주고받고 공을 넣으면 아이들과 같이 기뻐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축구경기 이후 상담과 생활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린 것 아닐까요?

백승준 교사

### 아이들의 공감능력을 키워라

우리 반 아이들은 함께 발전 노력을 씁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왜 기분이 나쁜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해야 할지 5가지 정도 의견을 적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전소연 교사

### 칭찬 롤링페이퍼는 인성교육의 시작~

친구의 좋은 점을 알면 그 친구를 자연스럽게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은 인성교육의 시작이 됩니다. 우선 아이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친구의 롤링페이퍼에 친구의 칭찬을 무조건 한 가지 씁니다. 한 바퀴 돌고 난 후 한 명씩 일어나서 가장 마음에 든 칭찬을 발표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적대감 해소입니다. 의외로 가장 마음에 든 칭찬을 쓴 친구는 사이가 안 좋은 짝인 경우가 많입니다. 단점을 많이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관찰한 적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특별한 장점 또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친구가 나의 장점을 알고 있다는 경험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강유정 교사

###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에서 출발~

교육에 있어서 생활습관과 태도는 그야말로 칼날 쏟아지는 교육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도관과 같다. 이리저리 꼬여서 수로가 끊기거나 무관심으로 녹슬지 않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감정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대화, 공부 끝난 뒤에 이어지는 약식 축구 게임,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자칫 유치한 듯 보이는 약속과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초콜릿, 짜장면 한 그릇 만으로도 아이들은 고민도 털어놓고 자기 희망도 털어 놓으면서 마음을 열게 된다.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 이러한 생활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생활지도의 노하우가 아닐까? ㉠

이한솔 어학원 원장

# NEWS BRIFFING



##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24% 인하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인하계획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전체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당초 대비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 1회당 대입전형료 부담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균전형료가 31,591원으로 당초 대비 6,377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대학 지원 시에는 6,800~11,300원, 그 외 지역은 4,500~7,300원, 25개 대규모 대학 지원 시에는 5,500~11,100원 정도의 전형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대입전형료가 10만 원 이상인 고액 전형의 경우 최대 19,600원까지 전형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 창업유망팀 300+, 창업을 향한 새로운 날개를 퍼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을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은 대학과 중·고교 유망창업팀의 도전 의지를 격려하고, 창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대학의 창업 열기가 중·고교 창업 꿈나무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중·고교 창업 동아리도 출정식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권역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 창업유망팀 300팀과, 중·고교 창업동아리(YEEP) 41팀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에는 선배 창업가 특강, 유망팀 창업 아이템 전시 및 현장 상호평가, SNS 공유 이벤트, 학생 네트워킹 등 미래 창업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46명 졸업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 8월 말 전국 57개 대학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46명이 졸업(학부 32명, 석·박사 414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자는 총 107개국의 다양한 국적 출신



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199명, 45%), 유럽(93명, 21%), 아프리카(87명, 20%), 중남미(42명, 9%), 기타(25명, 5%) 순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273명, 61%), 자연공학계열(151명, 34%), 예체능계열(22명, 5%)이다.

1967년부터 시작된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은 전 세계 대학생 이상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친한(親韓)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3년부터는 매년 800여 명을 초청했으며, 현재 150개국 3,200여 명의 장학생이 국내 80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그간 배출된 3,850명의 졸업생은 각자 자국에서 장관, 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을 역임하는 등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교육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로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 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감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도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 (단위 : 조원, %)

구분	'17년 본예산		'18년 예산안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정부예산	400.5	100.0	429.0	100.0	28.5	7.1
교육부	61.6	15.4	68.1	15.9	6.5	10.6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등이다.

대한민국 독도 세종에서 만나다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8월 28일 새롬고등학교(교장 윤재국)에서 '독도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독도 영토주권의식 및 독도사랑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2년부터 독도전시관을 구축·운영해왔으며, 서울·경남·충북·전북·대전·인천·경기·전남·대구·광주에 이어 세종에 개관하게 됐다.

오는 9월 말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독도전시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 독도전시관은 새롬고등학교에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되며,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독도 간접체험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물로 기획·구성됐다. 또한 독도신문 키오스크를 통해 독도 체험활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받도록 하여 독도학습에 대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도전시관이 다양한 독도 관련 정보를 체험하는 전시관이자, 시민들에게 독도를 가까이 느끼게 하는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생활수기 공모전**

2017.9.11.(월) ~ 10.16.(월)

자세한 사항은 eduinfo.go.kr 참고하세요.

**접수기간**  
2017.9.11.(월) ~ 10.16.(월)

**공모주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사례, 관련 경험 등  
※ (예) 지역 신문 배정학교-계곡학교-누리과정-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영양제 활용한 사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학 및 진로상담에 관한 사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안내 및 홍보한 사례 등

**참가자격**  
지방교육재정에 관심있는 국내거주 내·외국인 모두  
※ 특수위 주체로 여러 직종 교육 가능, 중·고생 이상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 eduinfo@keris.or.kr, 053-714-6579

**작성방법**  
제출 작성양식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등) 활용  
※ 분량 A4 1-2매 내외, 글꼴 신영표,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 글자수 1,000자(공백포함) 내외 자유형식의 수필, 이미지 첨부 가능  
※ 작성한 수기 작품은 접수기간 내 이메일(eduinfo@keris.or.kr) 제출

**시상내역**  
연평균 논문에 상당 수여 및 상금 지급

구분	시상 명수	포상 내용
최우수	1	주요지 관 교육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우수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상금 20만원

※ 응모 수중 당의 여러 시상 항목 및 시상 수 변경 가능  
※ 수상작은 약간의 보완한 단락을 위해 문장조절을 할 수 있음  
※ 공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에 출품 되어거나 출품 예정 혹은 집필한 작품은 제출 금지

**심사방법**  
수기할 제출한 작품 중 1차 심사 100명에게 이메일로 심평부를 선정합니다.

# NEWS BRIEFING



## 수능 개편, 1년 유예하기로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그러나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

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고 대입전향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

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3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 교육부 통계청 공동,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교육부와 통계청은 초·중·고 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아 사

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험조사는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17.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고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번 공동 시험 조사를 통해 2018년 유아사교육비 분 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에 대학 자율권 확대



교육부는 8월 30일 대학이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주도가 아닌 대

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립대학 총장을 임용한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①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②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③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됐으며, 특히,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 제기로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돼 왔다. 이에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한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가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제청토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닝, 새로운 기술로 날개를 달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교육청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2017 이러닝 코리아(e-Learning Korea 2017)」를 개최했다. 이러닝 코리아는 최신 이러닝 동향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러닝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2회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닝, 새로운 기술로 날개를 달다(e-Learning, Happy Encounter with New Technology)'라는 주제로 국제박람회, 국제컨퍼런스과 다양한 부대 및 연계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15개 국가의 약 1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정책홍보관, 기업관 등 200여 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3일간 약 2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2017 SW교육 발전 공로상 모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7 소프트웨어(SW) 교육 발전 공로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상」

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른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과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에 크게 공헌한 공로자를 시상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등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와, SW교육 관련 기업·단체 종사자 등이다. 공모 내용은 △학교 SW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자 △지역사회 SW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SW교육문화 등 SW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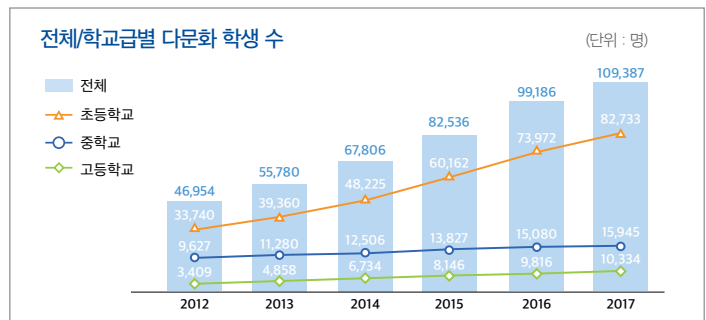
추천서 및 구비서류 양식,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상세 안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www.kofa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2017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만여 개 학교(유·초·중등/고등) 및 시·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로, 각종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646만 8,62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에서는 신입생 총원율이 일반대학 98.7%, 전문대학 96.7%로 '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 및 모바일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8월 30일 수립·발표했다.



우선,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입 전형명칭을 표준화한다. 전형 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학생부종합(OO인재전형), △△전형(실기) 등으로 유형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대입 전형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안내하고, 권장사항이었던 '학생부 반영' 등을 의무화하는 등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수시모집 원서접수(2019.9.6.~9.10.)와 정시모집 원서접수(2019.12.26.~12.31.)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http://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adig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㉞



<https://happyedu.moe.go.kr>

### 행복한 교육 웹진에는

- ✓ 정확하고 깊이 있는 교육정책
- ✓ 교육철학이 담긴 선생님의 이야기 '삶과 교육'
- ✓ 우수학교 탐방기 '꿈이 영그는 현장'
- ✓ 수업명사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이런 수업 어때요'
- ✓ 학급운영의 노하우가 총망라된 '학급경영 노트'
- ✓ 새로운 교육이론을 한걸음 먼저 만나는 '교육논단'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 ★ 구독신청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행복한 교육』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 이벤트 01

### 『행복한 교육』 열혈 독자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열심히 읽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열혈 독자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교육정책이 있으면 3줄 이내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 이벤트 02

### 『행복한 교육』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소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 8월호 이벤트 당첨자

김연미(제주 제주시) / 신동경(강원 춘천시) / 김성진(인천 연수구) / 정태신(부산 금정구) / 봉은종(대전 서구) 님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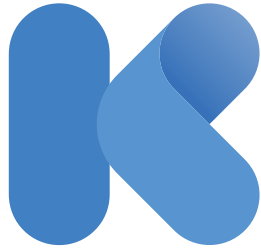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주명현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기수  
 교육연구사 김지선 김지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종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 K-MOOC

100대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 과제에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로 한국형 무크(K-MOOC)강좌의 확대가 제안되었다. K-MO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질의 강좌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개강좌 운용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의 순환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K-MOOC와 소통하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러스 친구



### K-MOOC BI (Brand Identity)

- [심볼마크]는 'Korean'과 'Knowledge'를 상징하는 이니셜 K를 심볼화함. 직선과 곡선은 직관과 유연한 사고를 상징하며, 앞뒤가 뒤집히며 융합하는 곡선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결합하고 연계해줌을 상징함. 지식을 상징하는 블루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의 정체성을 강조함.
- [워드마크]는 교육 서비스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산세리프 계열의 서체를 사용함.

교육부 대학재정과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어진동) | E-MAIL : 제도 문의 (sk0824@moe.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진흥본부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창계천로 14 (무교동 77) | 공식 홈페이지 : www.kmooc.kr | E-MAIL : 제도 문의 (kmooc@nile.or.kr) 홍보 문의 (kmoocpr@nile.or.kr)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창의·융합으로 함께 꾸는 꿈”

# 제3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2017. 9. 26.(화) ~ 28.(목),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

